

2018 KOREA-UK TYA Project

# 오렌지 북극곰

## <Orange Polar Bear>

Evan Placey and Ko Sunduck

August 2018

## Prologue

### 프롤로그

*[The girl and boy are in the world of ice. In this section they can be moved by the ensemble. There are projections of images related to the text. Some of the the text is spoken in translation by the ensemble. There are no surtitles in this section]*

(소년과 소녀 빙하 세계에 있다. 이 장면에서는 써포터즈(앙상블)가 두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다. 텍스트와 관계있는 이미지들이 뜬다. 일부 텍스트는 써포터즈가 한/영 번역으로 읽는다. 자막은 없다)

*(The Girl and Boy sit on large melting cubes of ice, the cubes moving precariously.)*

(소녀와 소년 녹아내리고 있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 위에 각자 앉아있고, 그 얼음 덩어리는 위태롭게 떠다닌다.)

**소녀: 얼음이 짹 갈라진다.**

Girl: The ice cracks

**Boy: An avalanche**

소년: 얼음 사태

**소녀: 얼음 조각 위에 나 홀로 있다.**

Girl: I'm alone on a sheet of ice

**Boy: I'm alone on a sheet of ice**

소년: 난 혼자 얼음 조각 위에 있다

**소녀: 아무도 날 보지 않는다**

Girl: No one sees me

**Boy: No one sees me**

소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소녀: 모두들 유튜브에서 시장통 폭파 사건을 보느라 바쁘니까**

Girl: Everyone's busy watching a video of a bomb exploding in a market on youtube

**Boy: Thinking about rallies, protests from a legal, or maybe illegal, election**

소년: 합법 혹은 불법 선거를 지지, 성토하는 시위를 생각하느라고

소녀: 주택가를 휩쓸어버린 폭풍우 사진을 보느라 바쁘니까

Girl: Looking at photos of a storm that destroyed some people's homes

**Boy: Listening to an expert talk about all the things that cause cancer and how to cure it by 2040**

소년: 암의 포괄적 발병 원인과 2040 년대 치유 전망을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말을 듣느라고 바쁘다.

소녀: 유튜브 배경 화면에 자기 생각에 빠진 젊은 여자가 보인다.

Girl: And from here I can see a young woman in the background of the video, with other things on her mind

**Boy: And from here I can see a young man walking by the protests wondering what this means for his home work, and his part-time job, and the exams he's about to sit**

소년: 시위대 옆을 지나가면서 이 시위가 학교 숙제, 아르바이트 일, 가까이 다가온 시험에 끼칠 영향이 무엇일까 궁리하는 젊은 남자가 보인다.

소녀: 폭풍우 잔해 옆에 있는 한 청년은 자기 집을 삼켜버린 강물을 보며 차라리 헤엄치는 게 최선일까 고민하고 있다.

Girl: I know there's a young person standing next to the debris from the storm, staring at the river that was once their home and wondering if the best thing to do is dive in and swim

**Boy: I know there's a young person listening to the cancer expert wondering what the point was of all that sunscreen if they're likely going to get cancer anyway.**

소년: 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뭘 해도 결국 암에 걸린다면 그 많은 햇볕 차단제가 다 무슨 소용일까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음을 안다

소녀: 그들이 저기, 가까이 있다.

Girl: They're there, nearby.

**Boy: Just in the background.**

소년: 배경 화면에만.

소녀: 말없이, 투명 인간처럼.

Girl: Silent, unseen.

**Boy: And they each know each other's stories, because it's their own story.**

소년: 그들은 각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이니까.

**소녀: 그들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Girl: And they all know each other's stories, because it's their own story.

**Boy: And somewhere else now, in Korea, there's the aftermath of an impeachment and threats from neighbors**

소년: 한국 어느 곳에는 지금 탄핵의 후유증과 이웃 나라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소녀: 영국 어느 곳에서는 지금 국민 투표 후유증이 도사리고 있다.**

Girl: And somewhere else now, in the UK, there's the aftermath of a referendum

**Boy: And she's there, keeping her head down**

소년: 그리고 저기, 소녀가 있다. 고개를 푹 숙인 소녀.

**소녀: 그리고 저기, 소년이 있다. 모든 소리를 차단해버린 소년.**

Girl: And he's there, muting out the sound of it all.

(사이)

(Pause)

**Boy: And he senses her there – this Girl.**

소년: 소년은 거기서 소녀를 감지한다 – 이 소녀.

**소녀: 소녀는 거기서 소년을 감지한다 – 이 소년.**

Girl: And she senses him there – this Boy.

(사이)

(Pause)

**Boy: He senses the Girl. She's adrift at sea.**

소년: 소년은 소녀를 감지한다. 바다를 표류중인 소녀.

**소녀:** 소녀는 소년을 감지한다. 소녀처럼 표류중인 소년.

Girl: She senses the Boy. He's adrift like her.

**Boy: The ice spins**

소년: 얼음이 돈다.

**소녀: 떠내려 간다**

Girl: Drifts

**Boy: And they both wonder if they'll ever make it back.**

소년: 과연 살아돌아갈까 둘다 자신이 없다.

## Scene 1

*[The world of ice transforms to the real world of the boy's flat, in a big UK city. His face is projected from the webcam on his TV monitor, and there are subtitles across his image. Some, but not all, subtitled]*

*[빙하 세계는 소년이 사는 영국 대도시, 현실의 아파트로 전환한다. 소년의 얼굴이 TV 모니터에 장착된 웹캠을 통해 뜬다. 그의 영상 위로 자막이 뜬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자막이 있다]*

**소녀:** 소년은 저기 바다 건너 아파트에 있다. 우리 아파트랑 그닥 다르진 않다. 내 생각이지만. 아마 이만큼 높은 고층 아파트는 아닐거다. 소년 엄마가 시리얼 그릇 옆에 쪽지를 남겼다.

Girl: He's there, across the ocean, in a flat. Not dissimilar to mine. I think. Maybe not as high; probably not a high-rise like mine. His mum has left a note by his cereal bowl.

**Boy: Milk.**

**Potatoes.**

**Cabbage.**

**Carrot.**

**Cigarettes.**

**Which Boy's not old enough to buy.**

소년: 우유.

감자.

양배추.

당근.

담배.

그건 미성년인 소년은 살 수 없는 것.

**Cocopops.**

코코팝스.

**Which Will's mum doesn't "get."**

그건 윌의 엄마는 꿰지 않은 것. 이해 못하는 것.

**(Mum): We do not have such things in my country.**

(엄마): 우리 나라에는 그런 거 없거든

**We'll then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럼 엄마 나라로 가.

**She also doesn't get that it's the boy's country too.**

엄마는 거기가 소년의 나라이기도 한 것 또한 꿰지 못한다.

**In her eyes this is the boy's country. This place where she cleans up after people who can't be bothered to do their own hoovering, where she wipes the arses of old people – the same old people who proclaim that everyone should just go back to their own country.**

엄마 눈에는 여기가 소년의 나라. 스스로 진공 청소기 하나 돌리지 않는 사람들 대신 청소해주고, 이민자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떠드는 바로 그 늙은 사람들의 엉덩이 닦아주는 이곳.

**Mum buys him the cocopops as he's convinced her it's what people do here.**

여기 사람이면 코코팝스라고 소년이 설득하자 엄마도 사준다.

**She buys it for him so people will think he's more British.**

조금이라도 더 그를 영국 사람으로 봐주기를 기대하며 사준다.

소녀 : 소년은 자신이 영국 사람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엄마가 뭐든지 할 거라는 걸 안다. 코코팝은 그 시작일 뿐이지. 날 예쁘고 지적인 여학생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아빠처럼. 어른들은 우리 복잡한 속을 짐작이나 할까 몰라.

Girl: Boy knows that his mum does whatever it takes to make him look British. Cocopops is just the beginning. Just like my dad who wants to transform me into a pretty and intelligent girl. Do you think adults even understand our complicated minds?

**Boy:** Even though it's just him in yesterday's pants watching the news and no one can actually see him eating them - see him being British.

소년: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옷을 입은 채로 뉴스보고, 사실 코코팝스 먹는 거 누가 볼 수나 있나 - 영국 사람 된 걸 보기를 하나.

*(The news is showing airstrikes*

뉴스는 공습 상황을 비추고 있다

*Is showing ISIS flags*

IS 깃발을 비추고 있다

*Is showing bleeding bodies*

피 흘리는 몸뚱어리를 비추고 있다)

*(Boy begins putting on his ill-fitting uniform. Looks in the mirror – an image mirrored by Girl getting ready.)*

(소년, 몸에 맞지않는 교복을 입기 시작한다. 거울을 들여다본다 – 소녀 같은 동작으로 학교갈 준비를 한다)

## Scene 2

*[The scene shifts to Jiyoung's flat. Now her face is projected from the webcam, and there are subtitles across her image. Some, but not all, subtitled]*

[장면 지영의 아파트로 옮겨간다. 이제 지영의 얼굴이 웹캠을 통해 뜨고, 그의 영상 위로 자막이 뜬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에는 자막이 있다]

**Boy:** And somewhere else, across the ocean, the Girl is there, in that flat. Where the 20-story ~~the-numbered~~ high-rise flats ~~of over 20-stories~~ stand in columns and rows. And there, on the fifteenth floor, in the corner flat, is the Girl. In the corner of her room, she takes out a secret box.

소년 : 소녀는 저기, 바다 건너, 아파트에 있다. 20 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번호표를 달고 일렬종대, 일렬횡대로 서있는 곳. 15 층 구석 아파트에 소녀는 산다. 자기 방 한 구석에서 소녀가 비밀 상자를 꺼낸다.

소녀 : (상자에서 검은 리본을 꺼내 가방에 달며) 소녀는 아침마다 이 황량한 행성에 검은 깃발을 꽂는다. 오늘은 공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어린애들을 애도하며 묵념....

Girl: (Taking out the black ribbon in the box and attaching it to her backpack) the girl puts up the black flag in this bleak planet every morning. Today to pray in silence for the children covered in blood from the airstrike....

**Boy: The ribbon reminds her of the people killed violently somewhere. ~~There is~~And then there's another ritual that the Girl does every morning: Doing her hair with the curler. ~~To straighten her fringe is her first priority~~The top priority is straightening her fringe. The time required is 40 minutes.**

소년 : 소녀가 아침에 하는 일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고대기로 머리 손질하기. 특히 앞머리 펴기가 중요하다. 소요 시간 40 분.

소녀 : 언젠가 학교에서 빌어먹을 남자애가 소녀를 보고 말했다. 완전 돼지털.  
그 뒤로 소녀는 머리 손질없이 절대 밖에 나가지 않는다. 외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Girl: One time a jerk commented on her hair at school. Your wiry hair is a total mess.  
After that incident she never goes out without doing her hair. That is the least she can do to survive in a society that holds appearances so high.

*(밖에서 할머니와 아빠 목소리가 들린다.)*  
*(There in the living room, her grandma and dad are talking.)*

**아빠 : 할머니, 파란 와이셔츠 안 다렸어요?**

Dad: Grandma, didn't you iron my blue Y-shirts?

**할머니 : 아이고, 깜빡했저. 금방 다리마.**

Grandma: Argh, I forgot. I will do it now.

**아빠 :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한숨을 내쉬며) 됐어요. 저 오늘 늦어요.**

Dad: What's wrong with you these days, why do you keep forgetting? (Sighing) Never mind. I'll be late tonight.

**할머니 : 벌써 가멘? 밥 다 되신디...**

Grandma: You are leaving already? Breakfast is ready now...



**Boy: Instead of sticky notes of some random grocery list, her apartment is alive with the sound of her family.**

소년 : 소녀 집엔 장보기 목록따위나 적혀있는 썰렁한 쪽지 대신 저렇게 북적대는 가족이 있지.

소녀 : 잘 나가는 게임포털회사 쏘대 아버지는 신제품을 고안해내느라 늘 바쁘고, 할머니는 그 아버지를 뽐내나게 뒷바라지하느라 늘 바쁘고, 권력을 쥔 누군가는 폭탄과 성폭력으로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느라 늘 바쁘고...

Girl: Her dad, a hotshot game portal company man, is always busy designing a new product, grandma is always busy attending to her dad, someone in power is always busy testing their power through bombs and sexual attacks...

근데, 세상이 개 바쁜 순간에도 땀 뻘뻘 흘리며 고대기를 하는 건 뭐냐. 테러가 터지는 것보다 여드름이 얼굴을 테러하는 게 더 끔찍한 건 뭐냐. 소녀는 피투성이로 뒹굴던 아이들을 기억하며 애도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다.

By the way, even in this moment when the world is terribly busy, why am I doing my hair with a curler all sweating? Why am I more concerned with acne attacking my face than terror plaguing people? Remembering the children covered in blood, the Girl pulls herself together and mourn for them one more time.

**할머니(소리) : 야! 밥 다 식었저!**

Grandma (Voice): Sweetie! The food is getting cold!

소녀 : 애도를 방해하는 저 밥, 밥, 밥타령!

Girl: Her nagging really interrupts my mourning, food, food, food!

*(소녀, 비밀상자를 제자리에 갖다놓고, 서둘러 집을 나선다.)*

*(Girl, putting the secret box back, hurriedly gets out of the flat.)*

**할머니 : 야, 밥은? 빌어먹을 년, 거울 보는 시간에 밥이나 먹주마는...**

Grandma: Sweetie, what about breakfast? Augh, instead of looking at that damn mirror, eat breakfast...

**Boy: (Simultaneously) ...without even looking at her hot breakfast, the Girl is off to school.**

소년 : (동시에) 따끈한 밥상을 그냥 건너뛰고 소녀는 학교에 간다.

소녀 : (동시에) 차가운 코코팝을 대충 먹어치우고 소년은 학교에 간다.

Girl: (Simultaneously) ...after having a bowl of cold cocopops cereal, the Boy is off to school.

### S 3

*(The ensemble - UK and Korean - forms the bus, and then the classroom. No subtitles)*  
(써포터즈가 - 영국팀과 한국팀 - 버스가 되고, 다시 교실이 된다. 자막 없음)

**소녀: 소년은 걸어서... 아니... 버스를 탄다.**

Girl: And the boy walks to...no. He. He gets the bus.

**Boy: Music explodes from headphones**

소년: 음악이 헤드폰에서 폭발한다

**Words sprayed from lips**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들

**Bombs of books thudding to the floor**

바닥으로 쿵쿵 떨어지는 책 폭탄

**Too much perfume smoking the air**

공기를 뿌연게 만드는 과다한 향수

**Moving wreckage as the bus trucks along.**

털털털 버스에 실려가는 잔해.

**Amongst it all the Boy tries to hide. A face in the background of the photo.**

이 와중에 소년은 숨으려고 기를 쓴다. 사진 한 구석에 있는 얼굴

**Staring at nothing.**

멍한 시선.

**(Student) What are you staring at Paedo?**

(학생) 뭘봐 변태 자식?

**Because his eyes have accidentally landed on Arthur.**

그의 시선이 무심결에 아더에게 꽂혔다고.

**(Student) Arthur, that weirdo is staring at you.**

(학생)아더, 저 변태 자식이 너 꼬나본다.

**Arthur says nothing.**

아더는 아무 말도 않는다.

**And the boy closes his fists. Tries to be invisible. Like he is most of the time. But the bus comes to a halt, and Arthur and his friends forget about him.**

소년 주먹을 움켜쥔다. 투명 인간이려고 기를 쓴다. 대략 늘 그랬듯이. 그런데 마침 버스가 멈추자, 아더와 그 무리들은 소년의 존재를 잊는다.

*(The bus stops, they all tumble out.)*

*(버스가 서고, 모두 우르르 내린다.)*

**Boy: Groups colliding, a mixing pot of every label and stereotype of school.**

소년: 학교내의 각종 집단이 얼키고 섞여 이뤄진 혼합체간의 격돌.

*(A classroom in the UK and a classroom in Korea – it is both at once though again, Boy and Girl are only in their own while the ensemble are in both.)*

*(영국의 교실과 한국의 교실 – 동시에 둘 다이지만 이번에도 소년과 소녀는 두 사람 간에 앙상블을 유지하면서 각자 공간에서 움직인다.)*

소녀: 범생이, 컴잘알(캠덕후), 힙스터(정보통), 힙스터와 컴잘알 합체, 고딕충, 센개, 존예보스(세젤예), 개그맨, 관중 그리고 소년.

Girl: The nerd, the computer geek, the info hipster, the hipster-greek hybrid, the Goth, I-am-the-boss jock, I-am-the-prettiest popular girl, the class clown, thirst-for-the-attention-type. And the Boy.

**Boy: And the Boy. With no label. Who fits nowhere.**

소년: 그리고 소년, 특색도 없고. 아무 데에도 맞지않는.

**And something feels different today. Unbalanced.**

오늘은 웬지 다르다. 불균형감.

**He can't see anything sticking out, different than the other days. Because it's more the absence of something.**

다른 날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볼 수 없다. 오히려什么的 부재이기 때문에.

**It's more just...**

차라리 뭐랄까...

소녀: 틈새, 있는지도 모르는 빈 구멍. 소년이 느끼는 불균형은 이런 틈새탓이다. 소년에게 그 틈새란?  
암튼 이곳에선 소녀가 딱 그런 틈새다. 아무도 소녀가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딱 한 사람 태희만 빼고.

Girl: A gap. An unnoticeable hole. It's a gap like this that makes the Boy feel unbalanced. What does that gap mean to the Boy? The Girl is like this gap here. Because here nobody knows the Girl exists. Except Taehee herself.

*(There's a sudden switch of light and/or sound and we're in Girl's classroom.)*  
(순식간에 조명과 음향이 따로 혹은 같이 바뀌고 우리는 소녀 교실에 있다.)

#### S 4

한국 교실.

*(The classroom in Korea. Again, UK actors are in there too. Some lines may be spoken or repeated in English. Limited subtitling.)*

(한국 교실. 다시 말하건데, 영국 배우들도 포함이다. 일부는 영어로 대사를 치거나 반복할 수도 있다. 자막은 일부만.)

소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The Girl, is reading a book in her corner seat.*

태희,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교실에 들어온다. 태희 폰에서 걸그룹 노래가 짹짹 울려 퍼진다.

*Taehee, in the spotlight, enters the classroom. Girl popstar group songs are playing loud from Taehee's mobile phone.*

태희 : 짜잔, 나 폰 바꿨다!

Taehee: Hey look, I got a new phone!

*(아이들, 환호한다.)*

*(Classmates, cheer.)*

태희 : 야, 붙어 붙어.

Taehee: Hey, hurry up and gather around.

여학생 1 : 잠깐잠깐, 나 쌍꺼풀. (쌍꺼풀 액을 바른다)

Girl 1: Wait wait, my double eyelids. (Applying double eyelid liquid glue)

**태희 : 쌍수 좀 해.**

Taehee: Get double eyelid surgery.

**여학생 1 : 성적 오르면 해준대.**

Girl 1: Probably when I get a better grade.

**여학생 2 : 태희야. (얼굴을 내밀며 눈썹펜을 건넨다)**

Girl 2: Taehee. (*Hands over the eyebrow pencil, thrusting up her face*)

**태희 : (눈썹을 그려주며 자랑하듯) 이번에 걸그룹 S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더라.**

Taehee: (Drawing eyebrows for Girl 2 and saying boastfully) The Girl Group S members do their eyebrows like this.

**Boy: The centre of this classroom is Taehee. ~~The Her~~ classmates ~~are always~~ swarming around her like stupid flies to a light. Taehee's relationship status ~~in social media~~ online changes by the hour.**

소년 : 이 교실의 주인공은 태희. 태희 둘레엔 언제나 애들이 파리떼처럼 들끓는다. 태희 SNS 엔 연예중인 남자가 실시간으로 바뀌지.

*(태희, 소녀와 눈이 마주친다.)*

*(Taehee, makes eye contact with the Girl.)*

**태희 : 넌?**

Taehee: Would you?

**소녀 : 아, 아냐아냐.**

Girl: No, I am okay.

**태희 : 뭐래? 찍새 좀 하라고. 안 찍을 거잖아.**

Taehee: What are you talking about? Take a picture for us then. I mean, you are not going to be in the picture with us anyway, right?

**소녀 : 어어.**

Girl: Sure, sure.

(지영, 엉거주춤 일어나 태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Jiyong, in a half-rising posture, takes a picture for them with Taehee's cell phone.)

**소녀 : 소녀는 반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없는 유일한 사람.**

Girl: The Girl is the only one in her class who doesn't have a profile picture on Facebook.

**Boy: Like the girl, the boy too has no profile picture. He prefers to be the default icon: a shadow where someone once was or should be.**

소년 : 소년도 소녀처럼 프로필 사진이 없다. 따로 프로필 설정 안 함. 나 본연의 나인 그림자.

**여학생들 : 와, 이게 나야? 역시, 여신 태희~**

Girls: Wow, is this me? No doubt, you are our goddess~

**소녀 : 여신 태희?**

Girl: Taehee, our goddess?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같은 반이 됐을 때, 태희는 그닥 눈에 띄는 애가 아니었다. 소녀보다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훨씬 애 같았다.**

When they first started middle school and were assigned to the same class, Taehee was not so special. A lot smaller than the Girl, didn't know how to talk, and looked like a baby compared to the Girl.

**태희 : 옷 예쁘다... 나도 그 메이커 좋아하는데... 나 너랑 같은 아파트야... 같이 급식실 갈래?**

Taehee: That's an awesome shirt... It's also one of my favorite brands.... I live in the same flat as you.... Want to hit the cafeteria?

**소녀 : 그 당시 태희가 여신 될 확률은 0.0000000001%. 하지만 1 학년 겨울부터 태희 몸은 탈바꿈에 탈바꿈을 거듭했고, 3 학년이 되자,**

Girl: At that time there was a slim chance that she'd become a goddess. But over the winter holidays during our freshman year, Taehee's body developed. And by the senior year,

**태희 : 야, 옷이 그게 뭐냐? 라인이 드러나야지.**

Taehee: Hey, what are you wearing? Where is your waistline?

소녀 : 태희는 이미 여자가 돼 있었다. 태희가 완숙한 여자가 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주변 남자들. 힐끔 곁눈질로 혹은 뚫어져라 태희를 음미하는 느끼한 눈길들. 으윽~ (진저리를 친다)

Girl: Taehee has become a grown woman. Once Taehee became a full-figured woman, the boys were the first to notice. They would either steal glances or just stare and admire her. Ugh~ (Shudders)

**Boy: There's an ~~exists an~~ insurmountable wall between Taehee and the Girl. But Taehee picks just one person and drags her around wherever she goes: the Girl.**

소년 : 태희와 소녀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그런데도 태희가 꼭 집어 끌고다니는 건 오직 한 사람, 소녀.

소녀 : 소녀는 태희한테 온종일 끌려다니지. 급식실은 다행이고, 화장실, 학원, 카페, 쇼핑몰, 심지어 남친 데이트장소까지... 소녀는 싫다는 말을 못하니까. 소녀는 혼자 남겨질까봐 눈치껏 행동하니까.

Girl: Taehee drags the Girl around all day long. If it's to the cageteria, okay, but to the rest room, preparatory school, café, shopping mall, and even to her date..... Because the Girl cannot say no. Because the Girl sees which way the wind is blowing out of fear of being left alone.

태희 : (웃으며) 앤 완전 대공사야. (소녀 얼굴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여기, 여기, 여기...

Taehee: (Laughing at her) you need an extreme makeover. (Pointing on the Girl's face) Here, here, and here...

**Boy: Biting her lips, the Girl laughs along with Taehee.**

소년 : 소녀는 입술을 꼭꼭 깨물며 태희와 함께 웃는다.

소녀 : 산처럼 높은 파도가 태희를 덮친다. 웃음소리가 바다 속에 잠긴다.

Girl: A wave as high as mountains hits Taehee. Her laughter sinks into the sea.

S 5

*(Ice sounds reprised as the scene changes. Subtitles)*

*(장면 전환과 함께 빙하 음향 반복 재생. 자막)*

**Boy: At lunch the boy feels that same sense of unbalance, like when he was a kid and would try to ride the see-saw by himself. And then he remembers the Girl far away, staring at her phone screen trying to avoid anyone seeing her, so he too gets lost in his.**

소년: 점심 시간에도 소년은 어렸을 적 혼자 시소를 타려고 했을 때와 같은 불균형감을 감지한다. 그때 남들의 시선을 피해 스마트폰 스크린에 코를 박고 있는 먼 곳의 소녀를 떠올리고, 그도 그렇게 한다.

**소녀: (츄파춥스를 빨아먹으며) 소년은 온라인 게임중. 별로 잘하는 건 아니고.**

Girl: (Licking a chuppachupps) and the boy is playing his video game, which he's not very good at.

**Boy: He's really good at video games.**

소년: 그는 정말로 비디오 게임을 잘한다.

**소녀: 겨우 level 3, 그건 -**

Girl: He's only on level 3, which is -

**Boy: He's almost on level 4 which is really really**

소년: 거의 level 4 수준 그건 정말 정말

**소녀: - 진짜 별로지만. 소녀가 반에서 중간은 되는 것처럼 행동하듯이, 소년도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Girl: - It's terrible. But just like the Girl pretends she's part of the cool crowd in her class, he pretends he's a hotshot.

**Boy: He punches, slits, rams. And he's home.**

소년: 펀치를 날리고, 찌고, 부딪친다. 집에 도착.

**소녀: 소년 집에 도착. 타파웨어에서 포스트잇을 떼낸다.**

Girl: And he's home and pulls the sticky note off the Tupperware.

**Boy: "Dinner." And he thinks about leaving the sticky on, letting it burn in the microwave.**

**(He pulls it off.) He watches his dinner spin and spin in the microwave with nowhere to go.**

소년: "저녁밥." 포스트잇을 떼지않고, 전자레인지에서 타도록 내버려두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소년, 포스트잇을 떼어낸다.) 저녁밥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갈 곳을 잃고 맴도는 것을 본다.

소녀 : 전자렌지에서 빙빙 도는 저녁밥... 소년은 빈 집에서, 소녀는 태희한테 붙들려 맨날 저렇게 제자리만 빙빙대지. (츄파춥스를 와작 씹어먹고는 빈 막대를 담배처럼 꼬나물었다가 버린다. 아랫배가 다시 싸해짐을 느끼며) 소녀 아랫배에선 또다시 찬기운이 빙빙. 태희가 핫한 쇼핑몰이라며 소녀를 끌고 다닐 때도 등에선 땀이 나는데 뱃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Girl: Dinner is turning around in the microwave... The Boy in the empty house, and the Girl under Taehee's grip, turning round and round in place. (Crunches a chuppachupps, holds the candy-less stick in her mouth and tosses it in the trash, feeling cold again in her lower belly) In her lower belly, the cold sensation swirls again. When Taehee dragged the Girl all over the so-called hot and trendy shopping mall, the Girl's back was sweating but her belly was ice-cold.

**Boy: Crouching-Tightening her body ~~to the fullest~~ to shake off the cold sensation, the Girl steps into the darkness of the fifteenth floor. Her grandma is ~~in the darkness~~there. A flatscreen is on 24 hours a day. Better than an empty house.**

소년 : 소녀는 찬기운을 떨쳐내보려고 몸을 한껏 움츠린 채 15 층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어둠 속엔 할머니가 있다. 24 시간 평판스크린이 있다. 빈집보다 낫지.

*(할머니, TV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른 빨래를 개는 중이다.)*

*(Grandma, humming along the song on T.V, is folding the laundry.)*

**소녀 : 할머니 이맛살에 새겨진 거센 파도. TV 빛 파도를 헤치며 마른 빨래들을 짹싸게 망사리에 담은 굵직한 손. 그 손마디 아래서 힘없이 나풀대는 하얀 수초.**

Girl: The violent waves carved on the forehead of her grandma. Her rough hand putting the laundry in the net with lightning speed through the Technicolor T.V. waves. The white seaweed wavering under those knuckles.

**Boy: (Feeling a little shy) Grandma's folding the Girl's bra....**

소년 : (조금 부끄러워하며) 저건 소녀의 브래지어...

**소녀 : (놀라서) 할머니! (얼른 브래지어를 낚아챈다)**

Girl: (With a jolt) Grandma! (Snatches her bra quickly)

**할머니 : 완? 밥은?**

Grandma: Back home? Have you eaten dinner?

**소녀 : 내 방 들어오지 말랬잖아. 내 물건 손대지 말라고.**

Girl: Didn't I tell you never to come in my room? Never touch my belongings.

**할머니 : 속옷은 벌이 와랑와랑할 때 바싹 말려사 되어. 경 방에다 널민 냄새 나꼭 될로고?**

Grandma: You ought to dry underwear thoroughly in broad daylight. They stink if you dry them inside the room.

소녀 : 내가 알아서 한다고.

Girl: I know what I am doing.

**Boy: Grandma ~~flicks-surfs~~ channels. The cold sensation that started in the Girl's lower belly stops in the North Pole.**

소년 : 할머니가 채널을 돌린다. 소녀 아랫배에서 시작된 찬기운이 북극에서 멈춘다.

*(The Boy's TV is also on.)*

*(소년 집 TV도 켜있다.)*

**Boy: The news is showing a polar bear stranded on a broken ice cap. And a grey-haired lady is showing a diagram of what this will look like in 10 years, 20, 50. And the boy thinks: Why do you care? You won't be here.**

소년: 뉴스에서 깨어진 얼음 덩어리를 타고 떠다니는 북극곰을 비추고 있다. 머리가 허영게 센 여자가 10 년, 20 년, 50 년 후의 전망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다. 소년은 생각한다. 웬 관심? 그땐 여기 없을 거면서.

*(The Boy and Girl, look at the T.V. for a while.)*

*(소년과 소녀, 잠시 TV를 본다.)*

**Boy: In bed the boy tosses and turns, the ice water particularly turbulent this evening. A crack of light from a fisherman's boat.**

소년: 침대에 누워 소년이 몸을 뒤척이고, 빙하 물은 오늘 저녁 유난히 요동친다. 어선에서 새어나오는 한줄기 불빛.

**Except it's the polar bear. Her brown eyes com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boy realises this might be the end. But then she kisses him. Smelling of sweat and bleach and pine.**

사실은 북극곰. 점점 가까와 오는 북극곰의 갈색 눈알. 어쩌면 끝장이구나 소년은 깨닫는다. 그러나 그때 곰이 키스를 한다. 땀과 표백제와 소나무향을 풍기면서.

**(Mum): Thank you for doing the shopping. You can't sleep?**

(엄마): 시장 봐줘서 고마워. 잠이 안 오니?

**You want me to sing for you? When you were a baby in my country, I would sing.**

자장가 불러줘? 우리 나라에서 네가 아가였을 땐, 자장가 불러줬잖아.

**소녀: 재 엄마가 자장가라도 불러주려나? 만약 우리 엄마라면...뭘 불러줄까 생각중...**

Girl: I wonder if his mum would sing lullabies for him. I am thinking what my mum would sing... for me...

**Boy: And the boy remembers how they would make music with spoons and pots when Dad was at work.**

소년: 아빠가 출근하신 후 엄마랑 숟가락과 냄비로 음악을 만들던 일을 떠올린다.

**소녀: 소년이 좀 더 컸을 때는, 엄마랑 유로비전 뮤직 컨테스트를 보며 수상자를 점찍었다.**

Girl: And when the boy was older, they would watch Eurovision together and make bets.

**Boy: And when he was older still, they would sing along to the radio.**

소년: 소년이 그때보다 더 나이를 먹은 후에는 라디오에 맞춰 함께 노래를 하곤 했다.

**소녀: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가 됐다. 노래를 불러도 들어줄 사람 하나없는 텅빈 집.**

Girl: And then one day it was just him alone. Singing for no one to hear in an empty house.

**Boy: And the girl's longing for her mum, but really she's better off without her.**

소년 : 소녀가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사실 엄마가 없는 편이 훨씬 낫다

**Mum: Do you want me to sing?**

엄마: 자장가 불러줘?

**Boy: I'm asleep.**

소년: 자고 있잖아요.

**And he rolls over onto his side.**

옆으로 돌아눕는다.

**Boy: Can you get out of my room? Can't I have some privacy?**

소년: 좀 나가줄래요? 사생활 보장 좀 해줘요!

(소녀, 비밀 상자를 꺼낸다. 자기 방 거울 앞에 앉는다.)

*(The Girl, takes out the secret box. Sits in front of the mirror in her room.)*

**소녀 : (비밀 상자에서 화장품들을 꺼내며)**

**퍼프, 비비크림, 파우더 팩트, 섀도우, 뷰러, 아이라이너...**

**(Taking the cosmetics out of the secret box)**

Girl: Sponge, B.B cream, compact powder, eye shadow, eyelash curler, eyeliner...

**사용법 전혀 모름. 사용감 전혀 없음.**

Totally oblivious as to how to use the products. Totally unaware of what to expect with their uses.

**태희가 부추겨서 엉겁결에 사모은 화장품들**

The makeups that Taehee egged on to buy sneer at the Girl.

**(기억 속 태희) 앤 완전 대공사야. 여기, 여기, 여기...**

(Taehee from her memory) That's true, you need an extreme makeover. Here, here, and here...

*(소녀, 오기가 나서 화장품 뚜껑들을 하나씩 열어젖힌다.)*

*(The Girl, irritated, opens each and every makeup.)*

**소녀 : (유튜브를 검색하며) 십대화장법.... (화면을 따라 화장한다.)**

Girl: (Searching YouTube for) Teenager makeup.... (Applies makeups by the instructions on YouTube.)

**소녀 :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선전해봤자 결국은 똑같은 화장품, 똑같은 화장법... 태희는 걸그룹을 따라하고, 아이들은 태희를 따라하고... (화장을 멈추고) 소녀는 똑 부러지게 태희한테 반격하는 자신을 상상한다. 난 남들이 정한 방식으로 여자가 되기 싫을 뿐이야!**

Girl: They promote their products by highlighting their unique features, but in the end they are all the same makeup, the same makeup techniques... Taehee imitates the girl groups, classmates imitate Taehee.... (Stops applying makeup) She visualizes herself striking back at Taehee point-blank. I just don't want to become a woman by the rules somebody else has made!

**Boy: I too feel the cold sensation that's in the Girl's lower belly. Like water from a melting iceberg...**

소년 : 소녀 아랫배에서 시작된 찬기운. 그건 빙하가 녹은 물...

**소녀 : 빙하처럼 얼어붙었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빠르게 녹아내리는 중.**

Girl: The yearning for her mum, frozen as hard as an iceberg is melting rapidly.

**Boy: The ice water is particularly turbulent this evening.**

소년 : 빙하물이 오늘 저녁 유난히 요동친다.

소녀 : 거울 속에 북극곰이 앉아있다. 세상이 원하는 S 라인이 아니라서, 뽀얗고 가름한 얼굴이 아니라서 세상 밖으로 밀려난 북극곰.

Girl: There in the mirror the polar bear sits. The polar bear kicked out of the world because it didn't have the most-desired S-line body shape, and because it didn't have a porcelain white, v-shaped face.

**Boy: The Girl conjures an image of her mum wearing makeup. And its subtle scent from her memory...**

소년 : 소녀는 화장한 엄마 얼굴을 상상해본다. 기억 속에 살짝 묻어나는 은은한 화장품 냄새...

소녀 : 얼굴은 전혀 기억 안 나는데 화장품 냄새를 맡으면 엄마 발이 보여.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히던 발이... 그 발을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나았을까.

Girl: I don't remember her face at all but her makeup scent brings back mom's feet. Her feet moving in and out like waves... Her feet I was not able to hold... If I didn't let go of those feet, would it be better now?

**Boy: the Girl believes that her absent mum is the only person who'd understand her in this world. But she's wrong. They don't understand you. And they're absent even if they're there anyhow.**

소년 : 소녀는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함께 있지 않아도 엄마라고 믿는다. 그건 아닌데. 엄마들은 이해 못 해. 함께 있어도 어차피 없는 사람이나 진 배 없어.

소녀 : 엄마 내 기분 알지?

Girl: Mum, you know how I feel?

S 6

*[Ensemble- bus into school, then into cafeteria. Subtitles for Boy and Girl's dialogue]*

*[씨포터즈 - 버스는 학교로, 다시 급식실로. 소년과 소녀의 대사 자막있음]*

**Boy: Cocopops splashing**

소년: 첨병 코코팝스

**Music exploding**

폭발하는 음악

**Ice water spraying**

뿜어지는 빙하 물

**Bombs thudding**

쿵 떨어지는 폭탄

**소녀: 버스가 덜컹덜컹 잘도 간다.**

Girl: And the bus trucks along.

**Boy: Melting pot pours into maths class but today it's different.**

소년: 수학 시간은 잡동사니로 들끓는데 오늘은 다르다.

**It's like looking in the mirror. Because amongst the hipster jeans and geek ipads there's him.**

거울을 들여다보는 느낌. 힙스터 청바지와 컴퓨터 덕후 아이패드사이에 그가 있어서.

**But it's not him. It's her. No label. Not fitting. Her name's Sarah – he doesn't know how he knows this. She glances at him and it's the first time and the hundredth time all at once.**

그렇지만 소년이 아니다. 소녀다. 특색도 없고, 아무 데도 어울리지 않는. 이름은 사라 – 소년 자신이 어떻게 그걸 아나 모른다. 소녀가 소년을 힐끔 쳐다보고 그것은 첫번째이자 백팔번째.

**소녀: 저렇게 대놓고 쳐다보면 안되지. 근데 재도 어쩔 수 없나 보다.**

Girl: He should really stop staring at her. But he can't.

**Boy: The boy's never seen her before, but at the same time knows he has.**

소년: 이전에 한 번도 소녀를 본 적이 없지만 동시에 본 적이 있음을 소년은 안다.

Girl: Fast-forward to lunch.

**소녀: 점심 시간으로 흑.**

**Boy: You weren't here yesterday.**

소년: 어제 너 여기 없었지.

**Sarah: What?**

사라: 뭐?

**Boy: Right?**

소년: 그치?

**Sarah: So?**

사라: 그래서?

**Boy: Just I...noticed. I think.**

소년: 그냥... 못 본 것 같아서. 내 생각에.

*(Pause. He hovers with his dinner tray.)*

*(사이. 소년 식판을 들고 서성인다.)*

**지영: 완전 어색.**

Jiyong: This is awkward.

**소년은 재랑 앉고 싶겠지만,**

He wants to sit with her.

**성격상 안 앉을 거다.**

He won't.

*(He finally moves, sits further along the table.)*

*(소년 마침내 움직여서, 반대편 식탁에 앉는다.)*

*(Pause. He eats.)*

*(사이. 소년 먹는다.)*

**Sarah: Is the Bolognese as terrible as the ratatouille? Think it's just the tomato soup from earlier this week with some soggy courgettes added in.**

사라: 고기 스파게티도 야채스프만큼 엉망이니? 아무래도 주초에 나왔던 토마토 스프에 시들어 빠진 호박을 썰어넣고 끓였나봐..

**Boy: It's all right actually. You can have it if you like? Trade you?**

소년: 그럭 저럭 괜찮아. 이거 먹을래? 바꿔 먹을까?

**Sarah: I don't eat meat.**

사라: 나 고기 안 먹어.

**Boy: Right, sorry.**

소년: 맞다, 미안.

*(Pause.)*

*(사이.)*

**Sarah: You can sit here if you want. *(Indicates across from her.)***

사라: 여기 앉으려면 앉아. *(자기 앉자리를 가리킨다.)*

소녀: 자기 쪽으로 앉으라는 뜻? 태희처럼 재도 적극적이네. 소년은 안 앉겠지만.

Girl: **Is she inviting him to sit with her?** The girl is forward like Taehee. He won't sit by her.

**Boy: I'm all right thanks.**

소년: 됐어 땡큐우.

*(They continue eating in silence.*

*He gets up with his tray and sits across from her.)*

*(둘다 말없이 먹기만 한다.*

*소년이 식판을 들고 일어나 소녀 앉자리에 가 앉는다.)*

**Boy: More efficient use of space.**

소년: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

*(Beat)*

*(뚱뚱)*

소녀: 한국이나 영국이나 남자애들은 다 똑같다.

Girl: Korean, British, boys are all the same.

**Boy: How come?**

소년: 왜?

**Sarah: How come what?**

사라: 뭐가 왜?



**Boy: You don't eat meat?**

소년: 고기 안 먹어?

**Sarah: Um, like a million reasons. The pain, the pointless violence of factory farming, the waste, not to men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사라: 음, 이유를 대자면 한없이. 고통,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자행되는 무의미한 폭력, 쓰레기, 환경에 미치는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Boy: Yeah but what about fruits and vegetables?**

소년: 그렇지 그런데 과일이나 야채는?

**Sarah: You're have ethical reservations against fruit and vegetables?**

사라: 과일과 야채에 윤리적 책임감 느끼니?

**Boy: Our consumption of them is killing the environment too. The overproduction, the pesticides doing damage to children in some country far away.**

소년: 과일과 야채 소비도 환경을 해치잖아. 과잉 생산도 그렇고, 먼 나라 아이들이 살충제 피해를 입잖아.

**Sarah: And their parents, the underpaid workers,**

사라: 그 아이들의 부모는 임금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이고,

**Boy: And their parents, the underpaid workers, and the carbon footprint from flying that courgette from Morocco**

소년: 그 아이들의 부모는 임금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이고, 모로코에서 호박 공수하면서 생기는 탄소 발자국

**Sarah: The greenhouse gases from the plane that are heating up the artic and making polar bears homeless.**

사라: 북극의 온도를 높여 북극곰을 집 없는 처지로 전락시키는 비행기 온실 가스.

*(Beat.)*

*(둥둥.)*

**Boy: Why weren't you at school yesterday?**

소년: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Sarah: No reason. I just didn't fancy it.**

사라: 이유는 뭐. 그냥.

**Boy: Your parents let you just do that?**

소년: 네 부모님은 냅두셔?

**Sarah: They don't care. They didn't know, but they wouldn't care anyway.**

사라: 신경 안 쓰셔. 모르셔, 알아도 뭐 상관없고:

**Boy: Aren't you worried the school will notice?**

소년: 학교에서 알게 될 텐데 괜찮아?

**Sarah: You think any of this lot notices us?**

사라: 누가 우리에게 신경 쓸 것 같아?

**Boy: So you do it often? Bunk off?**

소년: 그러니까 자주 그러는 거네? 학교 막 제끼고?

**Sarah: "Bunk off?" What are you a 90's movie?**

사라: "학교 막 제끼고?" 너, 90 년대 영화 찍니?

**Boy: But if they caught you**

소년: 그러다 걸리면

**Sarah: Then they'd kick me out of school. Which is rather ironic.**

사라: 그럼 자르겠지. 제낀다고 아예 자른다 좀 웃기지만.

**Boy: You don't care about your exams?**

소년: 시험 걱정 안해?

**Sarah: What for?**

사라: 왜?

**Boy: I dunno. So you can go to college, go to university, get a job.**

소년: 글썄. 그럼 전문대도 가고 종합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잡고.

**Sarah: What job? Most jobs will all be run by computers by then anyway. The world will be bombed out by Jihadists or drowning in water or owned by Starbucks and we'll all need to be euthanized so they can use our corpses as fuel for Chinese nuclear plants.**

사라: 직장? 그때 되면 어차피 일은 몽땅 컴퓨터들이 할 걸. 세상은 지하드들의 폭탄 세례를 받거나 물에 잠기거나 스타벅스한테 넘어가고 우린 모두 안락사되어 시체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이고.

*(He smiles.)*

*(소년 미소짓는다.)*

**Boy: I like you.**

소년: 너 맘에 든다.

**Sarah: You don't even know my name.**

사라: 내 이름도 모르면서.

*(He shrugs.)*

*(소년 어깨를 으쓱한다.)*

**Boy: Want to see something?**

소년: 뭐 보여줄까?

## Scene 7

*[Two scenes are interwoven, with the action continuous in both. Subtitles needed for dialogue]*

*[두 장면은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짜이고, 그때 두 장면의 액션 각기 계속된다. 대사에 자막 필요함]*

소녀 : 소년이... 움직였다. 여자애랑 친해지는데 성공. 소년은 이제 혼자만의 비밀마저 저 여자애랑 나누려 한다.

Girl: The boy... moved. Successfully became friends with ~~the Girl~~Sarah. And now he wants to share even his secret with ~~that Girl~~her.

태희도 움직였다. M 연예기획사 연습생 오디션 - 합격. 태희는 이제 SNS 에서 공공연한 얼짱여신이 되었다.

Taehee also moved. To participate in the trainee audition held by the M Entertainment Agency - Accepted. Taehee was recognized as a goddess of the most beautiful (ulzzang) in social media.

소녀는 자기 모습 이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불안해진다. 이제 소녀도 움직여야 할 때.

The Girl feels uneasy about living life as she is. Now she needs to move too.

**Boy: And as the Boy is climbing up the stairs with Sarah, he can't help thinking of the Girl i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 she's about to go up in the elevator of her building. She waits for her dad by the elevator button. And tries to come up with a way to get some info about her mum from her dad. But it's best not to expect anything out of asking grown ups questions...**

소년 : 사라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반대편 세계의 소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올라가려는 소녀. 소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단추 앞에서 아빠를 기다린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캐낼까 머리를 굴린다. 어른한테 별로 기대 안하는 게 좋은데...

소녀 : 아빠가 야근을 끝내고 집에 도착하는 시각이 대략 10 시. (인사 연습) 아빠도 지금 와요? (다시) 어? 아빠! (다시) 아, 아빠구나...(다시) 아빠 오랜만. (계속 표정을 바꾸며 연습한다)

Girl: Dad comes home from his night duty at around 10 pm. (Practising saying hi) Coming home now? (Again) Hey? Dad! (Again) Oh, Dad... (Again) Long time no see Dad. (Practicing with various facial expressions)

**Boy: He's out of breath from climbing up the stairs. And so is Sarah. \_\_\_\_\_ (Beat)**

**~~At five to ten.~~ The Girl sees her dad coming from a distance. Starts running in place. So it seems like she got there just now...**

소년 : 계단을 올랐더니 숨이 찬다. 사라도. 10 시 5 분 전. 멀리 아빠 모습이 보이자, 소녀가 제자리뛰기를 시작한다. 엘리베이터 앞에 막 도착한 것처럼...

(아빠, 피곤함이 묻어나는 걸음으로 다가온다. 무심히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소녀, 먼저 아는 척 해야되나 망설인다. 아빠, 문득 소녀를 본다.)

(Dad, approaches with a weary walk. Stops at the elevator absentmindedly. The Girl, hesitates to say hi first. Dad sees her.)

아빠 : 늦었네? 학원에서 인제 와?

Dad: You are home late? From the preparatory school?

**소녀 : 아... 보, 보충수업. 다음주 시험...**

Girl: Yeah... an after, after school class. For an exam next week...

(XXXXXXXXXXXXXXXXXXXX)

(The Girl enters the elevator with her dad.)

**소녀: 어디선가 소년도 올라가고, 태희도 올라가고, 소녀를 뒤에 남겨둔 채 모두들 올라간다.**

Girl: Somewhere the boy is going up, Taehee is also going up, and everyone is going up, leaving the girl behind.

(The roof of the school.)

(학교 옥탑.)

**Sarah: How'd do you know about this place?**

사라: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Boy: One time I...well it doesn't matter what happened, but I needed to hide, and I happened upon the caretaker's door, which was open, and then saw the stairs, and then another door, and here we are.**

소년: 한 번은 내가... 아 뭐 일이 있었나 뭐 상관이겠냐, 암튼 숨을 데가 필요했어, 우연히 수위실 앞에 있는데, 문이 열려있더라고, 계단이 보이고, 또 다른 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소녀: 재네들은 희망과 기회가 넘실대는 지평선을 본다. 내 앞에 보이는 거라곤 고작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철문뿐인데...**

Girl: They see the horizon, full of promise and possibilities, while all I see is the metal elevator door closing.

**Sarah: You can see them all from here.**

사라: 여기선 사람들이 다 보이네.

**Boy: They can't see us.**

소년: 사람들은 우리 못봐.

**Sarah: How do you know?**

사라: 네가 어떻게 알아?

**Boy: How often does anyone ever look up? Trust me.**

소년: 사람들이 몇 번이나 올려다 보겠니? 내 말만 믿어.

**Sarah: What if the caretaker comes back?**

사라: 수위 아저씨가 돌아오시면?

**Boy: For someone whose said no one will notice us, you seem awfully worried about getting caught.**

소년: 누가 우릴 보겠냐고 말한 사람치고는, 잡힐까봐 엄청 걱정하네.

*Sarah stands at the edge.*

*(소녀 난간에 선다.)*

*(엘리베이터)*

*(In the lift)*

*(소녀, 괜시리 앞머리만 만지작거린다. 아빠 또한 어색한 듯 헛기침을 여러 번 한다.)*

*(Girl, needlessly touches her fringe. Her dad awkwardly coughs a few times)*

**아빠 : 공부는? 잘 돼?**

Dad: How's your study going? Is it okay?

**소녀 : ... (어깨를 으쓱한다)**

Girl: (Shrugs her shoulders)

*(어색한 정적)*

*(Awkward silence)*

**아빠 : 많이 컸네...**

Dad: You've grown...

*(소녀, 얼른 가슴을 움츠린다.)*

*(The Girl instantly curls up her upper body.)*

**아빠 : 뭐이냐?**

Dad: What is it?

**소녀 : (아빠를 본다)**

Girl: (Looks at her dad)

**아빠 : 키.**

Dad: Your height.

**소녀 : ... (어깨를 으쓱한다)**

Girl: (Shrugs her shoulders)

**아빠 :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로 해야지.**

Dad: (Wrinkling up his forehead) Use your words.

**소녀 : 기억 안 나요...**

Girl: I don't remember...

*(아빠, 크게 한숨을 내쉬다. 피곤한 듯 손으로 목을 문지른다. 소녀, 엄마에 대해 물어볼까 말까 고민한다.)*

*(Dad, sighs deeply. Rubs his neck wearily. The Girl, wonders if she should ask about her mom or not.)*

*(On the roof.)*

*(옥탑.)*

**Sarah: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if I took a step forward?**

사라: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

**Boy: You'd die obviously.**

소년: 죽겠지 당연히.

**Sarah: Do you think?**

사라: 그럴까?

**Boy: It's like 40 feet.**

소년: 10 미터가 넘는데 그럼.

**Sarah: I used to do gymnastics.**

사라: 나, 체조했거든.

**Boy: I don't see a trampoline down there.**

소년: 저 밑에 트램폴린 같은 거 없다.

**Sarah: And do you think any of them would look up? Would they even notice?**

사라: 누가 올려다 보겠어? 눈치라도 채겠어?

*(She falls backwards – away from the edge. He catches her.)*

*(소녀 뒤쪽으로 떨어진다 – 난간 안쪽으로. 소년 소녀를 붙잡는다.)*

**Bo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You could've, could've...**

소년: 야 뭐야? 까딱하면, 까딱하면...

**Sarah: I didn't fall forwards.**

사라: 앞으로 떨어지진 않았잖아.

**Boy: Shit, you really. It looked like...**

소년: 에이씨, 너 정말. 진짜 꼭...

**Well you still could've hit your head on the floor up here.**

진짜 여기 바닥에 머리를 박을 수도 있었다고...

**Sarah: But you caught me.**

사라: 네가 붙들었잖아.

**Boy: And if I hadn't?**

소년: 안 붙들었으면?

**Sarah: I knew that you would.**

사라: 네가 붙들 줄 알았거든.

*(엘리베이터)*

*(In the lift)*



**소녀: 저...**

Girl: Dad...

**아빠 : 뭐?**

Dad: What?

**소녀 : 어...어...**

Girl: Uhh, ummm...

**아빠 : 크게!**

Dad: Louder!

**소녀 : 엄마!**

Girl: Mum!

**아빠 : 뭐?**

Dad: What?

**소녀 : (후다닥 해치워버리듯) 엄마 어딴어요?**

Girl: (As if to get it over with) Where is mum?

*(아빠와 소녀, 둘다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본다.)*

*(Dad and the Girl, both look at each other at a loss.)*

*(사이)*

**소녀 : 꼭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저 초등학교 입학하고는 전화도 없고... 그래서...**

Girl: I'm not saying I want to meet her... but I'm just curious... since I went to elementary school, there has been no phone call and what not... so...

**아빠 : 그래서?**

Dad: So?

**소녀 : 아무리 이혼해도 엄마였으니까... 그러니까 양육 책임이...**

Girl: You guys were divorced but she's my mum... so she needs to take care of me...

**아빠 : 어떤 양육 책임?**

Dad: What do you mean take of care you?

**소녀 : 네?**

Girl: Huh?

**아빠 : (깊이 숨을 내쉬며) 뭐가 부족한데?**

Dad: (Sighing deeply) what do you need?

**소녀 : 아니, 그게 아니라...**

Girl: Uhh, ummm, I just want to...

**아빠 : 뭐야? 너 안 눌렀어?**

Dad: Hey? Didn't you push the button?

*(아빠, 신경질적으로 15 층 버튼을 누른다.)*

*(Dad, pushes the fifteenth floor button irritably.)*

**소녀 : 소녀는 생각한다. 나라도 이런 남자랑은 절대 같이 안산다...**

Girl: The girl thinks. I totally understand mum, I wouldn't want to live with a man like him either.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소리)*

*(The sound of elevator going up)*

**소리 : 1, 2....**

Sound: 1, 2...

**소녀 : 엄마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었던 아빠**

Girl: My dad who wants to erase everything and anything related to mum

**소리 : 3, 4, 5...**

Sound: 3, 4, 5...

**소녀: 할머니가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서울 아들 집에 온 날**

Girl: The day that her grandma went on an airplane for the first time, and came to her son's home in Seoul across the sea.

**소녀 : 제주바다에서 전복을 찾는 대신, 이 방 저 방 2 살배기 소녀를 찾아헤매던 그 날**

Girl: The day she was searching for the two-year-old girl all over the place, instead of finding abalones in the Jeju water.

**소리 : 6, 7...**

Sound: 6, 7

**소녀 : 할머니를 보게 되면 엄마가 영영 안돌아올까봐 소녀는 이불장 속에 꼭꼭 숨어버렸다.**

Girl: The Girl was afraid that her mum would never return if she accepted grandma, so she hid in a linen closet.

**소리 : 8, 9, 10...**

Sound: 8, 9, 10...

**소녀 : 한참 뒤에 들리던 할머니의 구슬픈 노래 소리....**

Girl: Her grandma's sad song heard after a good while...

**(할머니)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Grandma) Eyeodo saana... Eyeodo saana...

**한참 뒤에 들리던 아빠 화난 목소리...**

Her dad's angry voice heard after a good while...

**(아빠) 딸이라서 그래.**

(Dad) It's because she is a girl.

**소녀 : 그리고 소녀를 억지로 끌어내던 아빠의 차갑고 딱딱한 손.**

Girl: And her dad's cold and rough hand pulled the Girl out forcibly.

**소리 : 11...12....**

Sound: 11, 12...

**소녀 : 소녀는 엄마를 부르며 악을 썼고, 아빠는 할머니를 부르며 악을 썼다.**

Girl: The girl cried out for her mum with all her might, and dad cried out for his mum, my grandma with all his might.

**(아빠) 젠장, 니 엄마는 이제부터 할머니야, 할머니! 알아들어?**

(Dad) Argh, your grandma is your mum from now on, your grandma! Do you understand?

**소리: 13...14....**

Sound: 13, 14...

**소녀 : 빙하물이 아파트 배수관을 따라**

**돌고 돌고 돌고**

Girl: The ice water runs along the flat water pipe  
Round and round and round

**소리 : 15 (땡)**

Sound: 15 (Ding)

## **Scene 8**

*[Ensemble creates Arthur, his mother and friends. Words are distributed. Maybe no subtitles needed]*

*[씨포터즈기 아더, 아더 엄마, 친구들을 연기한다. 대사 쪽지, 나눠가진다. 아마 자막은 필요 없을 듯]*

**소녀: 소년이 버스를 탄다. 텅 비었다. 수업이 아직 안끝났으니까 당연.**

**신경쓰는 사람도 없고 주목하는 사람도 없다. 저기선 소년이 뭘하든 내버려둔다.**

**여기라면 우리 아빠도 그렇고, 선생님, 모르는 어른들까지 장난아니게 간섭하는데.**

Girl: He takes the bus. Empty since last period hasn't been let out yet.

And no one cares, no one notices. They let him do what he wants, not like here where teachers, my dad, adults are always having a go at me.

**Boy: (Arthur) I'd be careful of her.**

**소년: (아더) 나라면 그 여자애랑 안 엮일 겐.**

**Boy: It's Arthur. The Boy stares ahead like he's been trained to do.**

소년: 아더니까. 소년 언제나처럼 앞만 쳐다본다.

**Boy: (Arthur) you know that girl is proper mental. Saw you with her at school.**

소년: (아더) 너 알지 그 여자애 또라이인 거. 너 학교에서 개랑 있더라.

**And the boy turns to see Arthur and his mates standing there, the bus that dropped them off behind them.**

소년은 몸을 돌려 아더와 그 무리들이 그들을 내려준 버스를 등지고 서있는 것을 본다.

**(Another kid) What you talking to him for?**

(다른 아이) 왜 재랑 말 섞냐?

**And Arthur's caught.**

아더 말하다 들킨다.

**(Kid) Arthur, what you talking to him for?**

(아이) 아더, 왜 재하고 말 섞냐고?

**(Arthur) Was just saying he's got a thing for freak-girl.**

(아더) 그냥 재가 또라이 여자애한테 빠졌다고 말한 거야.

**(Kid) Nasty. I bet she's freaky in more ways than one. Right freak-boy?**

(아이) 재수없다. 개가 한 두가지만 비정상이겠냐, 그치 비정상 녀석아?

**And the boy pretends not to hear their insults, pretends he's not there. Focuses on the engine of the bus and pretends he's come out of his body and is a jet flying above them**

소년은 그들의 모욕을 못 들은냥, 자기가 그곳에 없는냥 한다. 버스 엔진에 초집중하여 자기 몸에서 빠져 나와 버스 위를 나르는 제트기인냥 한다 -

*(The cackles/comments of Arthur and his friends are drowned out by jet engines)*

*(아더와 그 무리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헛소리가 제트기 엔진 소음에 묻힌다)*

**And from his jet above drops a bomb on the whole scene below.**

위에 떠있는 자기 제트기에서 아래 무리들에 폭탄을 투하한다.

**Boy: The doors open and he gets off even though it's not his stop. Looks over his shoulder, Arthur and his posse have got off too.**

소년: 버스문이 열리자 자기 정거장이 아니지만 내려선다. 어깨 너머로 본다. 아더와 그의 톨마니들도 내린다.

**Boy: The boy turns to run, but bashes right into a woman.**

소년: 소년 도망가려고 뒤돌아서다가 한 아줌마와 제대로 부딪친다.

소녀: 어른들은 항상 일을 망쳐요.

Girl: Because adults are always messing things up.

**Boy: She says his name.**

소년: 아줌마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Arthur's Mum): Oh. Hi.**

(아더 엄마) 오, 안녕.

**Where are you off to in a hurry? Look how tall you are.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saw you. I was just saying to Ayotunde that he should have you over after school. Wasn't I saying that?**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세상에 진짜 많이 컸네. 언제 널 마지막으로 봤더라. 그렇잖아도 예요턴디한테 너 집에 한 번 데려 오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랬지 응?

*(She turns to Arthur who has sidled up to his mum.)*

*(아줌마, 살금살금 다가오는 자기 아들 아더 쪽으로 몸을 돌린다.)*

**Why don't you come round today?**

오늘은 어때?

**And Arthur looks at the boy. Curious. Wondering what the boy will reply to his mother. And the boy, feeling suddenly brave in this new environment, revved up by his time with the girl perhaps, says:**

아더, 소년을 쳐다본다. 호기심에 차서. 소년이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하나 하고. 소년은, 이 새로운 상황에 별안간 용감무쌍해져서, 소녀랑 함께 시간을 보내서인가 활기차게, 대답한다.

**Sure. I'd love to come over.**

옛, 가야쥬.

*(Arthur is shocked. Pause. The Boy enjoys this, before he continues speaking with:)*

*(아더 경악한다. 사이. 소년 이 상황을 좀 즐긴 후, 말을 잇는다.)*

**Except I can't today. Another time.**

**And he bolts off before Arthur's mum can say anything else.**

근데 오늘은 안되겠네요. 다음에요.

소년, 아더 엄마가 말할 틈도 없이 황급히 떠난다.

소녀: 아더, 아니 에요턴디 엄마는 아무 것도 모른다. 소년과 아더가 단짝친구였다가 종난 게 언제 적 일이냐고. 하긴, 어른들은 정작 중요한 일들엔 관심이 없지. 냄새조차 못말지.

Girl: Arthur, no Ayotunde's mum doesn't know anything. It has been awhile that the Boy and Ayotunde fell apart and no more close friends. True, adults just don't care. Don't even smell.

**Boy: Back before Arthur was Arthur, back when Arthur was in fact Ayotunde, they were in Year 4. The boy had only joined the class a month before when his mum had moved them both to England from their country. And recognising a comrade in arms maybe, the boy took Ayotunde under his wing, when he too, just 4 weeks later, arrived with his mother from another country.**

소년: 옛날 아더가 아더이기 전, 옛날 아더가 실상 에요턴디였을 때, 둘은 사학년이였다. 소년도 바로 한달 전에 자기 엄마와 함께 영국으로 이주해왔다. 에요턴디가 그애 엄마와 함께 사주 후에 이주해왔을 때, 동지애 같은 것을 느끼고, 소년은 에요턴디를 자기 휘하로 받아들였다.

**They play pretend guns, chasing each other when they're nine.**

아홉 살 땐 권총놀이를 하면서, 서로 추격

**At ten they trade the pretend guns for water pistols and chase girls around the park.**

열 살 땐 물총으로 바꿔주고 공원 근처에서 여자 애들 추격.

**At eleven they trade those for video game controls and shoot lasers at goblins.**

열한 살 땐 비디오 게임 조종기로 바꾸고 도깨비들한테 레이저총 발사.

**They start secondary school and it's:**

중학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I can't today**

오늘은 안돼

**Because he was going out with his new friends**

걔 새로 사귀 친구들과 놀기로 했으니까

**I can't today.**

오늘은 안돼.

**Because he was going to some girl's party – one of the girls they used to chase around with a water pistol, and he didn't know her well enough to ask if the boy could come too.**

걔는 여자가 개최한 파티에 갈 거니까 – 물총 들고 쫓아다니던 애들 중 한 명인데, 소년을 데려가도 되는지 물어볼 만큼 친한 것은 아니래나.

**Until eventually it was just:**

급기야는 그냥 이렇게

**I can't.**

안돼.

**And then he became Arthur for some reason. Which is the dumbest choice of name ever.**

**And he wonders what the Girl would do. If this was her friend. If she would just let her friend insult her, if she would just stand there and take it like the Boy does.**

그리고 나서 무슨 까닭인지 아더가 됐다. 골라도 지지리 멍청이 같은 이름.

소년은 소녀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본다. 걔가 자기 친구라면 말이다. 소년처럼 그렇게 친구가 자기를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상황을 감내할까 말이다.

**소녀: 소녀는 태희를 떠올린다. 아더와 에요툰디가 완전 딴 사람 같듯, 지금의 태희도 예전 모습에서 너무 멀어져버렸다.**

**Girl: And the Girl thinks about Tae-hee. Somehow equally far away from her younger self as Arthur is from Ayotunde.**

**Boy: The news is showing the photos of three girls who have run away to Syria. The police are blaming the school, the school are blaming the parents, and the parents are blaming the police.**



소년: 뉴스에서는 시리아로 달아난 세명의 소녀 사진을 비추고 있다. 경찰은 학교를 비난하고, 학교는 부모들을 비난하고, 부모들은 경찰을 비난한다.

**Last night his Mum kept saying:**

간밤에 소년 엄마는 계속 같은 말을 했다.

**I don't understand it.**

이해가 안되네.

**The boy does.**

소년은 이해한다.

**He and his mum fled here. The people here are fleeing somewhere else.**

그와 엄마는 이곳으로 도망왔다. 이곳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친다.

**Everyone's running.**

모두 달리고 있다.

## Scene 9

소녀 : 소년은 게임에서 어떤 남자를 스크루드라이버로 쿡쿡 찌르는 중.

Girl: The boy's in the middle of piercing some man's flesh with a screwdriver in a game.

**Boy: Pretending it's Arthur's. Pretending it's Ayotunde's.**

소년: 아더 짜식인 것처럼. 예요튼디 짜식인 것처럼.

소녀 : 태희는 기획사 연습실에서 한창 춤 연습 중. 요즘은 태희 엄마가 태희를 끌고다니며 스케줄을 일일이 챙긴다.

Girl: Taehee is practising dancing in her entertainment agency studio. These days Taehee's mum manages her schedule.

소녀는 자기 엄마랑 모닝커피를 마시며 수다떠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엄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한다.

The Girl imagines herself chatting with her mum over a cup of morning coffee. She believes that her mum could do it.

**Boy: ~~When~~ the front door clicks.**

소년: 현관문이 찰칵할 때.

소녀: 짹 틀어막힌 현관문을 열어젖히는 찰나,

Girl: The moment she opens the firmly closed door,

*(할머니와 아빠가 기분 좋게 술자리를 하고 있다. 둘다 살짝 취한 모양새다. 지영, 잠시 멈춘다.)*

*(Her grandma and dad keep each other company for a drink in a good mood. Both of them are a litt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alcohol. Jiyong, holds back for a short while.)*

**할머니 : 밥 먹었?**

Grandma: Have you eaten?

**Mum: Have you eaten?**

엄마: 밥 먹었니?

**아빠 : 어, 우리 딸~ (다가와서 소녀를 안으려고 한다. 소녀, 어색해서 살짝 피한다. 아빠, 무안해서) 왜 이렇게 늦었어?**

Dad: Oh, my daughter~ (Approaches to hug the Girl. The Girl, feeling uneasy, backs away.

Dad, embarrassed) Why are you home so late?

**Boy: Why are you home so early?**

소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Mom: I...I wasn't needed as late.**

엄마: 으...응 일찍 끝났어.

**And mum smiles.**

엄마 웃어보인다.

**But the boy can read her.**

그렇지만 소년은 엄마 속내를 읽는다.

**할머니 : (소주잔을 들고 흥얼거리며) 이레 왕, 지지미 좀 먹어보라. 맛이 기막혀. 사는 게 뭐 별거라. 영 가족들 모영 맛있는 거 고치 먹으면 그게 사는 맛이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Grandma: (Holding the shot glass and humming) have a bite of this big pancake. Delicious, delicious. Don't take life too seriously. All you need is good food and a family to share it with.

Eyedo saana~ Eyedo saana~

**Boy: And later he hears her on the phone, speaking in the language of her country**

소년: 나중에 소년은 엄마가 자기 나라말로 전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Because she forgets that despite the cocopops the boy still understands it.**

코코팝스를 그렇게 먹고도 소년이 아직도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엄마가 잊은 덕분에.

**She lost her job. The lady at one of the houses she cleans says she stole something.**

엄마는 직장을 잃었다. 청소 다니는 집 중 한 군데에서 주인 여자가 엄마를 도둑으로 몰았다.

**Which isn't true. The lady has dementia in any case. But the agency didn't have a choice but to let her go.**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여잔 분명 노망이 든거다. 하지만 직업 소개소는 엄마를 해고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할머니 : 아고 좋다, 아고 좋다. 비 오난 막 지꺼점저. 꼭 바당 소곶에 이신 거 닻아. (물질 하는 품으로) 후여 후여.**

Grandma: Oh yeah, oh yeah. Rain makes me feel alive. It's just like being in the ocean. (In the Jeju woman diver's movement of picking sea creatures) Whew whew.

**아빠 : 후여 후여~**

Dad: Whew whew~

**소녀 : 소녀와 할머니를 제주 바다와 떼어놓은 장본인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를 기억해도 되나? 술만 취하면 아주 화목한 가족인양 행세하는 아빠가 소녀는 영 못마땅하다.**

Girl: It's not fair that the one who separated the Girl and her grandma from the Jeju water also remembers it the same. Whenever he gets drunk, he acts as if he has a happy family. She really hates that.

**소녀: 어린 시절, 할머니는 소녀보다도 더 방학을 기다렸다.**

Girl: When she was young, her grandma had been waiting for the summer break more than she had.

**방학이 되면, 소녀를 데리고 제주 고향집으로 날아갔다.**

Every break, she went with her to her Jeju Island home.

**소녀는 육지에서 온 손녀딸, 이혼한 아들네 딸이라는 수군거림이 싫어**

The Girl hated the fact that people talked behind her back about her being the granddaughter, the daughter of her divorced son

**파도 소리 넘치는 마당에서 혼자 잠수 놀이를 했고**

Played diving in the yard filled with the sound of waves

**할머니는 물질을 하느라 현무암처럼 새까맣졌다.**

And her grandma stayed out in the sea and grew darker like basalt.

**Boy: When the boy was younger he would sometimes go with his mum, like on half term or in the summer holidays.**

소년: 소년이 더 어렸을 적엔 중간 휴가나 여름 방학 같은 때면, 가끔 엄마를 따라 가곤 했다.

**Don't touch anything.**

아무 것도 만지면 안돼.

**And you wouldn't want to. The way some people live.**

뭐 사실 손대고 싶지도 않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좀 그렇다.

**Mum was giving the lady a bath so the boy examined her collection of dog figurines. Sitting in a glass case that Mum would have to dust after. Framed watercolour prints of dogs with the logo of a dog's home in the corner. This was her free gift for having a direct debit to some puppy charity.**

엄마가 주인 여자를 목욕시키는 동안, 조그만 강아지 조각상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이 진열장 먼지도 엄마가 털어내겠지. 강아지 보호기관 로고가 한 구석에 찍힌 수채화풍의 치와와 사진 액자. 강아지 보호 후원금 자동이체를 하고 받은 선물.

**소녀 : 초등학교 4 학년부터 방학을 기다리기 시작한 건 아빠.**

Girl: It was dad who had waited for her school holiday since she started 4th grade.

**소녀를 데리고 학원 여기저기를 등록하고는 할머니 방학도 없애버렸다.**

He registered her for the after-school schools everywhere and also took away her grandma's break.

**소녀는 명문대 출신 아빠 딸, 머리 둔한 딸이라는 수군거림이 싫어**

Because she hated people's talking about her dad graduating from the best college, and about her not being as smart as dad

**날마다 열심히 학원을 다녔지만 성적은 그게 그거.**

Every day she attended the cramming schools diligently but her grade stayed the same.

**할머니 얼굴만 아파트 콘크리트처럼 하얘져갔다.**

Only her grandma's face grew paler like a flat concrete wall.

*(할머니, 지지미를 뜯어 소녀 입에 넣어준다. 소녀, 생각에 잠겨있다가 얼떨결에 받아먹는다.)*

*(Grandma, takes a bite out of a pancake and puts it in the Girl's mouth. The Girl eats it before she knows while pondering.)*

**Boy: And the boy thought: in our country there were people with no money to eat. And so we came here so Mum could wipe some old lady's arse and we could still have not enough money to eat because this woman was sending money for a new pillow for a Chihuahua.**

소년: 그래서 소년은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는 음식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우린 이곳에 왔고, 엄마가 노인들 엉덩이를 닦아줬고, 그래도 여전히 음식 살 돈이 부족했다. 그건 이 할망구가 치와와한테 베개 따위나 새로 사주라고 돈을 보냈기 때문이야.

**소녀 : 음식 냄새 폭발, 거실을 뿌영게 만드는 과장된 웃음소리....**

Girl: Food smell exploding, exaggerated laughing sound smoking the living room....

**아빠 : 애 봐라. 애 봐라. 그걸 다 먹냐? 그만 먹어. 살찌.**

Dad: Hey you. Hey hey. Are you eating all of it? Stop there. You'll get fat.

**할머니 : 메? 어디가 살찌시니?**

Grandma: What? Nah she is not fat.

**아빠 : 할머니가 몰라서 그래요. 요즘 애들 얼마나 몸매 챙기는데... 아이고야, 우리딸 뱃살 나온 거 좀 봐. 아이고야, 나보다 더 나왔네.**

Dad: Grandma you know nothing. These days young people are so conscious of their bodies... My my, see my daughter's belly, huge. My, my, bigger than mine.

**할머니 : 히어뜩한 소리. (소녀에게 지지미를 건네며) 마. 따뜻할 때 더 먹으라.**

Grandma: Nonsense. (Handing her over more pancakes) Sweetie, have more while they are hot.

**지영 : (기분이 상해서) 됐어.**

Jiyong: (Pissed off) I am okay.

*(지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 핸드폰 화면만 응시한다.)*

*(Jiyong, wants to stamp out but can't. Just stares at the phone screen.)*

**아빠 : 예? 우리 딸, 빼줬어용? 할머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걸 해가지고 우릴 힘들게 해? 그럼 내일부터 다이어트하고 오늘은 맘껏 먹을까, 응?**

Dad: What? My sweetie, did I get on your nerves? Grandma, why do you give us a hard time with all this delicious food? How about starting dieting from tomorrow and eating as much as you want to today, eh?

**할머니 :** (노래하듯) 기여기여. 먹으라. 먹으라. 밥도 영 달려들멍 먹으믄 오죽 좋아? (지지미를 뜯어주며) 밖에서라도 밥은 잘 챙겨먹어서된다이. 나 눈엔 어떻 둘다 맨날 배고파보연...

Grandma: (As if singing) Yeah yeah. Have a bite. Have a bite. Really I'd like to see you eat with a hearty appetite. (Taking a bite out of a pancake and handing over) You shouldn't forget to eat, just because you're out and about. You both look hungry to me all the time...

**아빠 :** (술잔을 기울이며) 할머니, 나 소주.

Dad: (Picking up a glass) Grandma, more Soju for me.

**할머니 :** (일어나며) 기여기여.

Grandma: (Standing up) sure sure.

**아빠 :** 할머니, 거기 식탁 위에 핸드폰도.

Dad: Grandma, my cellphone on the dining table there too.

**할머니 :** 기여기여.

Grandma: Sure sure.

**Boy: And the boy, in a moment of anger, or vision, or protest,**

소년: 소년은 순간의 노여움으로 혹은 통찰력으로 혹은 저항으로

**소녀 :** (노려보며) 아빤 손 없어?

Girl: (Glaring) can't you do it yourself?

**Boy: Grabbed one of the frames**

소년: 액자 하나를 움켜쥐고

**할머니 :** (놀라며) 야, 야이 보라. 아방한테 거 무신 말버릇이고? 느 아방 돈 벌젠 썩빠지게 고생햄시네.

Grandma: (Shocked) Hey, you. Watch your mouth! You don't know how hard it is to support your family.

**Boy: and threw it against the wall.**

소년: 벽으로 던졌다.

아빠 : (실없이 웃음을 흘리며) 야, 우리 딸, 무섭네. 맨날 기획안 빠꾸시키는 우리 사장님보다 더 무섭네... (정색하며) 너... 그러면 안돼. 진짜 그러면 안돼. 같이 사는 난... 아니 할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여기 온 게 다 너 때문인데...

Dad: (Smiling blankly) Ow, my sweetie, you are terrifying. More terrifying than my boss who keeps rejecting my project ideas... (Seriously) You... shouldn't do that. Really you shouldn't do that. What about me living with you... Well, don't you feel sorry for your grandma? She came here only because of you...

(소녀, 분노를 삼키며 입술을 꼭꼭 깨문다.)

(The Girl, bites her lips, holding back her anger.)

**Boy: Smash.**

소년: 박살나게.

**Crack.**

부서지게

할머니 : (새로 가져온 술을 따라주며) 마. 마. 가족끼리 미안은 무신....

Grandma: (Pouring Soju she's just brought) No sorry please. That's the family for...

아빠 : (할머니를 애잔하게 바라보며) 우리 촌할망... (건배한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Dad: (Looking at her grandma sadly) our grandma from the village... (Toasts) Grandma, long live grandma...

## Scene 10

*[Music, projection and movement. A moment suggesting connection, but the connection gets lost]*

*[음향, 프로젝션, 동작. 하나의 순간이 연결 고리 역할을 하지만, 연결 지점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Boy: In bed he dreams of him and Sarah. The two of them in combat gear, with machine guns, waving black flags, burning things.**

소년: 침대에 누워 소년은 자신과 사라의 꿈을 꾸다. 둘은 전투복을 입고, 기관총을 메고, 검은 깃발을 흔들고 물건들을 태운다.

**He dreams of them backpacking in Asia.**

둘이 아시아 배낭 여행하는 꿈을 꾸다.

**He dreams of them adopting a dog from a dog's home.**

둘이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입양하는 꿈을 꾸다.

**He dreams of her crying-**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And how the dog licks her face to comfort her.**

강아지가 소녀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하는 꿈을 꾸다.

**And then he dreams of the Girl, faraway, in Korea. The one adrift like him.**

그리고 소년은 멀리 한국에 살고있는 소녀의 꿈을 꾸다. 자기처럼 표류하는 소녀.

소녀: 그리고 소녀는 멀리 영국에 있는 소년 꿈을 꾸다. 자기처럼 표류하는 소년.

Girl: And then she dreams of the boy, far away, in the UK. The one adrift like her,

역시 꿈 속에서 잠자는 중.

who is also asleep in a dream.

소년이 눈을 뜨고 소녀에게 다가온다.

And he opens his eyes, approaches her.

난 널 이해해, 소년이 말한다.

I understand you, he says.

그리고 소녀는 녹아내리는 얼음 덩어리에 둘러싸여, 물에 잠겨간다. 소녀가 소년에게 손을 뻗는다.

소년이 구하려 한다. 하지만 손이 닿는 순간, 소녀는 찌릿한 충격을 느낀다. 그건 단지 스크린. 소년은 스크린 뒷쪽에 갇혀있다. 스크린 불이 나간다. 소녀의 폐에 물이 차오른다.

And then she's drowning, surrounded by melting ice caps. And she puts her hand out to him, he's going to rescue her, but as her hand touches his, she gets a shock. It's just a screen. He's stuck behind a screen. And the screen goes black. And the girl's lungs are filled with water.

## Scene 11

*[A sense of heat. They are on the roof. Subtitles for dialogue]*

*[뜨거운 열이 느껴짐. 두 사람 옥탑에 있다. 대사에 자막]*

소녀: 오늘도 소년과 사라는 학교 옥상으로 몰래 진입. 비밀 탐정처럼 눈에 안 띄게. 재네들은 발각되지 않는 법을 안다.

Girl: Again, like spies the boy and Sarah have snuck away to the roof at school unnoticed. They know how to evade detection.



**Boy: Criminal to be teaching us maths in this weather. Hotter in there than it is out here.**

소년: 이런 날씨에 수학 공부라니 말도 안돼. 바깥보다 실내가 얼마나 뜨거운데.

**Sarah: How they control the masses, keep us obedient.**

사라: 대중을 통제하고 고분 고분하게 만드는 그들의 방식이지.

**소녀: 영국도 여기만큼 뜨겁나. 소년의 등도 나처럼 땀에 폭 젖었다.**

Girl: Is it as scorching hot in England as here? The boy's back dampens just like mine.

*(He undoes his school shirt, takes it off so he's just in his vest underneath.*

*소년은 교복 셔츠 단추를 풀고 벗어 조끼 바람이 된다.)*

**Boy: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climb trees with – ...with my friend. And we'd try to touch the sun. It seemed so close, so possible, you know? And then one day we just stopped trying.**

소년: 어릴 땐 자주 나무에 올라갔거든 - ... 친구랑. 저 해를 만져보려고. 금방 닿을 것 같더라고, 조금만 애쓰면 될 것 같았거든, 알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관뒀어.

**I don't know what I mean by that. I don't know why I told you that.**

지금 내가 뭘 말 하는 거냐, 너한테 이 말 왜 했냐.

**Sarah: One day my dad came home early – which for him is like 9pm. He reeked of whisky. And then he stepped in a painting I'd left drying on the hallway tiles. Red footprints now everywhere.**

사라 : 하루는 아빠가 일찍 귀가하셨어 – 한 아홉시경. 위스키 냄새를 풍기면서.

복도 타일에 그림을 말리려고 내놔있거든. 아빠가 그걸 밟았어. 빨간 발자국이 그때 사방에 찍혔지.

**Why can't you ever clean up? Do you know how much those tiles cost?**

좀 치우면 안 되니? 저 타일이 얼마나 비싼지 알거나 해?

**So I shouted: Well maybe if you were home you could clean up! Maybe if you did what normal parents did? Like cook food to put on the table –**

그래서 나도 막 소리를 질렀지. 아빠가 집에 있음 아빠가 치우면 되겠네! 정상적인 남의 집 부모처럼 하면 되잖아. 밥 해서 식탁에 차려주고 –

**What do you think pays for that food? Who do you think I work like a dog for? For you, that's who! For this family!**

저 음식은 무슨 돈으로 사는데? 내가 누구때문에 개처럼 일하는데? 바로 너, 너를 위해서라고! 이 가족을 위해서라고!

**But I knew he did it for himself. Not for me. I was so incensed that I started smearing the red paint all over the tiles. Well I don't want any of this! I just want a normal family.**

아니 난 알아 아빠가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난 너무 성질이 나서 타일 사방에 페인트를 문질러 대기 시작했어. 악 이런 거 다 싫어! 난 그냥 정상적인 가족이면 된다고.

**I thought he was going to hit me. But he just watched and quietly said:**

**Why can't you be more like your sister, you ungrateful bitch.**

나를 치겠지 싶더라. 그런데 그냥 지켜만 보다가 조용히 말하더라.

네 언니처럼 하면 안되겠니, 은혜도 모르는 망할 년.

*(She takes off her shoes and socks.)*

*(소녀, 신발과 양말을 벗는다.)*

**Boy: I knew you'd succumb. You can't hide beneath those clothes forever.**

소년: 네가 항복할 줄 알았다. 언제까지 그 천조각 밑에 숨어있을 수는 없거든.

*(He does the same, but quickly finds the floor in the heat is burning.*

*소년도 똑같이 한다, 하지만 금새 바닥이 열기 속에 절절 끓고 있는 것을 알게된다.)*

**Boy: Shit, that's completely...ow! Ow! There's nowhere to stand, it's actually burning –**

소년: 찢, 이건 완전...앗!앗! 설 곳이 없잖아, 이거 완전 펄펄 끓네.

*(He's hopping about wildly.*

*Finally he wraps himself around a pillar to be off the ground, looking ridiculous.)*

*(소년 정신없이 갇충거린다.*

*마침내 소년 우스꽝스럽게, 기둥에 몸을 감아 바닥에서 몸을 떼는다.)*

*(She laughs.)*

*(소녀 웃는다.)*

**Boy: How are you just standing there?**

소년: 넌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서있니?

*(She shrugs.)*

*(소녀 어깨를 으쓱한다.)*

**Boy: Doesn't it burn?**

소년: 화끈거리지 않아?

**Sarah: Yes.**

사라: 화끈거리려.

**Boy: So how are you doing that? Isn't it painful?**

소년: 그런데 어떻게 가만 있어? 고통스럽지 않아?

**Sarah: Yes but you just...own the pain.**

사라: 응 그냥...고통을 받아들이고.

*(She holds out a hand. He hesitates. Climbs down and hops over to her. Takes her hands. He's hopping in place.)*

*(소녀가 손을 내민다. 소년 망서린다. 바닥으로 내려와 소녀에게 팔짱 뛰어간다. 소녀의 손을 잡는다. 소년 제자리에서 팔짱거린다.)*

**Sarah: Just stand still.**

사라: 그냥 가만히 서있어봐

*(He does.)*

*(그대로 한다.)*

**Boy: I can't, I can't, I need to -**

소년: 안 돼, 안 돼, 난 난 난 -

*(She grips his hands tighter, not letting him go.)*

*(소녀 그의 손을 더 짊 잡고, 놔주지 않는다.)*

**Sarah: Just focus on...**

사라: 가만히 집중해봐...

**Boy: You?**

소년: 너한테?

**Sarah: No. On the pain. The moment that follows.**

사라: 아니. 고통에. 매 순간 순간에

*(He settles into it holding his breath, eyes squeezed shut, her holding his hands.)*

*(소년은 숨을 멈추고, 눈을 꼭 감고, 자신의 손을 쥐는 소녀, 이 모든 상황에 몸을 맡긴다.)*

**Sarah: Breathe out.**

사라: 숨을 내쉬고.

**Open your eyes.**

눈은 뜨고.

*(He does. She kisses him.)*

*소년 숨을 내쉬고 눈을 뜬다. 소녀 그에게 키스를 한다.*

*It's a surprise to him so he slightly hesitates.*

*돌발 상황이라 소년 조금 망설인다.*

*Then he kisses her back, still holding her hands, feet on the burning floor.*

*그리고 소년도 소녀에게 키스를 한다. 아직도 소녀의 손을 쥐고, 절절 끓고 있는 바닥에 발을 올려놓은 채로.*

*She moves closer as they kiss, placing her feet on top of his.*

*소녀, 키스를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발을 소년의 발등에 올린다.*

*His breath quickens and he moans in pain and delight at once.*

*소년, 숨이 가빠지고 고통과 환희를 동시에 느끼며 신음한다.)*

*(할머니, 지영 방에 불쑥 들어온다.*

*지영, 월과 소녀가 키스하는 모습에 폭 빠져있다가 화들짝 놀란다.)*

*(Grandma, barges into Jiyoung's room.*

*Jiyoung, is taken by surprise since she was engrossed in Will and the Girl's kissing.)*

할머니 : (쪽지를 건네며) 마.

Grandma: (Handing over the note) here.

지영 : 뭐?

Jiyoung: What?

할머니 : 췌. (방문 쪽을 돌아보며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한다)

Grandma: Shhh. (Looking back at the door to make sure nobody's there)

지영 : 뭔데? (쪽지를 펼쳐보며) 주소?

Jiyoung: What is it? (Unfolding the note) an address?

할머니 : .....느 어멍... 너미 힘들든 한번 만나보라.

Grandma: .....your mum... why don't you go meet her if it's so stressful.

(할머니, 서둘러 사라진다. 지영, 쪽지를 가만히 들여다본다.)

(Grandma, hurriedly goes out. Jiyoung, gazes blankly.)

(Schoolbell rings.)

(학교 종이 울린다.)

## Scene 12

[The ensemble creates the pressure and movement of this scene. Jaehee's journey is stylised and complex. Moving headshot with subtitles.]

[써포터즈가 이 장면의 긴장감과 동작을 연기한다. 재희의 행로는 양식화되어있고 복잡적이다.

움직이는 얼굴 사진에 자막 뜰.]

**Boy: (Moving) The Boy cannot help but smile.**

소년 : (이동하며) 소년은 웃음을 멈출 수가 없다.

(소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나타난다. 손에는 쪽지를 들고 있다.)

(The Girl shows up, cheeks all flushed. Has a note in her hand.)

**소녀 : (쪽지에 적힌 아파트를 발견하고) 저기다! 저 아파트촌 909 동에, 세상에, 엄마가 산다.**

Girl: (Spotting the same flat as in the note) that's it! In that flat unit 909, in that space, my mum lives.

**Boy: The Girl cannot help but smile.**

소년 : 소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다.

**소녀 :** (손거울을 꺼내 얼굴과 앞머리를 매만지며)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면서.

Girl: (Checking her face and fringe in the portable mirror) Smile calmly as best as I can.

**Boy: The Girl thinks that maybe she's met her mum already. The smiling cashier at the bookshop, or maybe the woman who gave her her seat at the library.**

소년 : 소녀는 어쩌면 이미 엄마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웃는 얼굴의 책방 점원이나, 도서관에서 자기에겐 자리를 양보했던 아줌마나.

소녀 : 어쩌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촛불집회에서 옆에 앉았던 여자가 얼굴을 내밀지 모른다. 도서관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여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곳에 머물던 누군가가 엄마라면...

Girl: When she pushes the door bell, the woman who sat beside her during the candle vigilance may show up at the door. Or maybe the woman who gave her her seat at the library. If that someone who has dreamed the same dream and has stayed in the same space would be my mum...

(부푼 가슴으로 아파트를 이리저리 올려다보며) 504...507....602.... 909 동은 어디야?

(Looking up at the flats with high hope) 504... 507... 602... Where is 909?

**Boy: Launches her secret operation. Operation "Search for Mum."**

소년 : 비밀작전 개시. 작전명 엄마 찾기.

(소녀, 건물들 사이를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한다.)

**경비: 어이 학생, 어디 가?**

Security Guard: Excuse me, where are you going?

**Boy: Warning. The Security guard - duck, roll, to avoid being detected.**

소년 : 경고. 경비 출몰 - 머리를 획 수그리고, 몸을 굴러, 아저씨 시선 피하기.

소녀 : 후다닥 개미로 변신.

Girl: Instantaneously turned into an ant.

(그 다음부터)

After then on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들에 섞여

*Mixed in among the ants crawling on the floor*

사람들 눈에 띄까 조마조마

*In fear of being detected by the residents*

자꾸자꾸 헛발질

*Her feet keep kicking randomly,*

마침내 보이는 909 동 건물.)

*And finally the Girl spots Unit #909.)*

Boy: Unit #909. Arrives-Arrival at ~~the~~-destination.

소년 : 909 동. 목적지 도착.

**소녀 : 909 동!**

**Girl: Unit # 909!**

**Boy: Warning. A huge glass door.**

소년 : 경고. 거대한 유리문.

**소녀 : 비밀번호로 가로막힌 유리문.**

Girl: the glass door protected by a password.

(소녀, 집 호수를 몇 번이나 누르려고 하다가 그만둔다. 누구 오는 사람 없나 기다리다가 바닥에 쪼그려 앉는다. 잠시 뒤, 키패드를 밀며 한 꼬마가 유리문 앞에 선다. 잠시 소녀를 흘깃 보고는 재빨리 비밀번호를 누른다. 문이 열린다.)

(Girl, tries to push the #909 bell a few times before giving up. Hoping anyone would show up, crouches down soon after. After a short while, a boy comes riding a skateboard and stops before the glass door. Quickly glances at the Girl and enters the password. The door opens.)

**Boy: The password Unlocked.**

소년 : 비밀번호 해제.

(소녀, 꼬마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엘리베이터까지 손 안대고 거저 탑승.

Girl, follows the boy like his shadow. A free ride all the way to the elevator.)

**꼬마: (능숙하게 버튼을 누르며) 안 눌러요? 몇 층 살아요?**

A boy: (Pushing the button as he's used to do) why don't you push the button? What is your floor?

(소녀, 주저주저하며 20 층을 누른다.)

(Girl, pushes the 20<sup>th</sup> floor hesitantly.)

**Boy: The elevator lurches upwards. Frmmm...**

소년 : 엘리베이터 발사. 슈우우웅...

(갑자기 문이 열리고 소녀와 함께 있던 꼬마 사라진다.

Doors suddenly open, and the boy who was with her disappears.

문이 닫히고 소녀만을 태운 엘리베이터 올라간다. 소녀, 거울을 보며 최종 점검.

(The doors lock closed and alone she rises to the top. One final check in the mirror.)

(20 층. 엘리베이터 신호음.)

(20<sup>th</sup> floor. Sound of elevator arriving.)

(소녀, 땡 소리에 놀라 얼떨결에 내린다. 덜덜 떨며 현관문들을 지나간다.)

(Girl, startled by the elevator sound, steps out in a hurry. Passes the apartment doors, trembling.)

**소녀 : (주문처럼)2018, 2018, 2018....**

**Girl: (As if knocking on wood) 2018, 2018, 2018....**

(2018 호 앞에 선 소녀, 숨이 턱 막힌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인다. 눈을 딱 감고 초인종을 꾸욱 누른다.)

(Girl, before #2018, gasps. Hesitates quite awhile before pushing the bell firmly.)

(초인종 소리.

순간 터져나오는 아기 울음 소리.)

(Sound of bell.

Right at that moment, baby's cry bursts out.)

(소녀,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돌진한다.

커플 한 쌍이 희희덕대며 엘리베이터에 오르다가 소녀와 부딪힌다.

소녀,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달려가 숨을 헐떡인다. 얼굴을 되는 대로 문지르며 화장을 지운다.)

(Girl, startled, storms into the elevator as if running away.

A couple steps into the elevator giggling and bumps into the Girl.



*The Girl, withdraws to the corner of the elevator and pants. Rubs her face frantically to get rid of her make-up.)*

**커플 남 : 학생, 괜찮아?**

Couple man: Hey, are you okay?

*(커플 여, 남자를 툭 치며 건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

*(Couple woman, signals the couple man to ignore her by giving him a quick jab.)*

**커플 남 : 그럼, 1 층....**

Couple man: Okay then, to the first floor....

*(커플 남여, 소녀 눈치를 보며 1 층을 누른다.*

*소녀,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며 풀썩 주저앉는다. 커플 남여, 놀래며 뒷걸음질친다.)*

*(The couple, pushes the first floor button studying the Girl's face. The Girl, her legs suddenly giving way, collapses on the floor. The couple, startled, steps back.)*

**소녀 : 열렸던 문이,**

Girl: The door opened,

**13 년만에 열렸던 문이**

The door opened in thirteen years

**다시 닫힌다.**

Closes again.

**닫힌다.**

Closes.

**Boy: Like the makeup removed halfway,**

소년 : 지우다만 화장처럼,

**The Girl peels away**

어정쩡하게 떨어져나가는 소녀.

**She is merely a suspicious outsider.**

소녀는 낯선 침입자일뿐.

**Threatening one's daily routines**

잔잔한 일상을 위협하는

**She is just a terrorist.**

테러리스트일뿐.

소녀 : (앞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보, 멍청이, 찌파, 찌질이... 엄마 집을 찾아간다고 뭐가 달라져?  
13 년이나 그 집 문밖에 있었는데... 대체 뭘 기다린 거야?

Girl: (Plucking her bangs) idiot, moron, loser, jerk... It was a stupid idea from the get go. Just because I find mum's flat doesn't mean things will change... I have been standing outside her apartment for thirteen years... What have I expected to get out of this?

(1 층.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 커플 남여, 서둘러 사라진다.)

(First floor. The sound of elevator arriving. The couple, hurriedly disappears.)

**Boy: The girl hurriedly jumps off this huge and unknown flat.**

소년 : 소녀는 이 거대하고 낯설은 아파트에서 황급히 뛰어내린다.

**Swimming among the people advancing like waves**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들 사이를 잠수하며

**Runs away from her mum who is surely living in a different ocean, a different world from hers.**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엄마한테서 도망친다.

소녀 : 아기 업은 할머니들이 노란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고

Girl: Grandmas with babies on their backs waiting for the yellow shuttle bus from the day care center

엄마를 찾는 아기들이 갈매기처럼 끼룩끼룩 울어대는 저녁.

The night that babies cry like a cawing sea gull, looking for their mums.

소녀는 이 낯선 세상을 벗어나려고,

To get out of this unknown world,

이 감당할 수 없는 기분을 벗어나려고

To get out of this unbearable feeling

죽을 힘을 다해 집으로 헤엄쳐간다.

She swims out to her home with all her might.

### Scene 13

[Will's headshot. Jiyoung's headshot. Moment of recognition between them. Subtitles needed]

[월의 얼굴 사진. 지영의 얼굴 사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인지하는 순간. 자막 필요]

**(The boy arrives home. Sits down at his mother's dressing table. He catches himself in the mirror. Is embarrassed.)**

(소년, 집에 도착한다. 엄마 화장대에 앉는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당황한다.)

**Boy: The boy catches himself in the mirror. And everything that made him happy seems to evaporate**

소년: 거울 속 자신을 본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이 증발하는 것 같다.

*(Boy undoes his tie, and puts it around his forehead like a warrior bandana.*

소년 넥타이를 풀어 마치 전사의 반다나처럼 이마에 묶는다.

*He ruffles through his mother's drawers. Finds some black lipstick.*

엄마의 화장대 서랍을 뒤져. 검정 립스틱을 발견한다.

*Draws lines under his eyes like war paint. Smears it. But he can still see himself so he tries with more and more.*

전투에 대비하듯 눈 밑에 줄을 긋는다. 문지른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자기 모습, 그래서 덧칠하고 또 덧칠한다.)

**Boy: No matter how much the boy tries to change, to disappear, he can still see himself.**

소년이 아무리 열심히 달라지고 사라지려 해도, 여전히 보이는 그의 모습.

*(He tries to wash off mum's make-up but a heavy stain remains*

소년 엄마 화장품을 씻어내려고 하지만 진한 화장은 그대로 남아있다.)

*(The Girl, arriving at her apartment. Hesitates in the hallway by the mirror. The Girl, washes off the remaining make-up stain. If possible, the boy and girl are looking at each other through their respective mirrors.*

소녀, 아파트 도착. 복도 거울 앞에서 머뭇거린다. 소녀, 얼굴에 남은 화장 얼룩을 마저 지운다. 가능하면, 소년과 소녀가 각자의 거울을 통해 상대방을 보는 것으로 한다.)

*(Mum appears.)*

(엄마 등장.)

**Mum: What happened? Did you get in a fight?**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싸웠어?

**Boy: No.**

아니.

**Mum: Tell me.**

엄마: 말해봐.

**Boy: I didn't! Why do you never believe me?**

아니라고! 왜 맨날 못 믿는 건데?

**Mum: Well then what happened to your face?**

엄마: 그래 그럼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Boy: It's just mud. From PE.**

그냥 진흙. 체육 시간에.

**Mum: Go have a bath. Later. I need to have one first. I have an interview.**

엄마: 가서 씻어. 나중에 해. 나부터 해야겠다. 면접이 있어.

*(The sound of T.V. news and her Grandma's reaction to it from the Girl's flat can be heard from where she's standing.)*

*(소녀 집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와 할머니의 반응이 소녀가 서있는 곳까지 들린다.)*

**Boy: The news is showing election polls.**

소년: 뉴스는 선거 투표 현황을 비추고 있다.

**A man is talking about how immigrants are stealing all the houses.**

한 남자가 이민자들이 어떤 식으로 주택을 모두 가로채는지 주절주절.

**Another story is showing a graph of rising house prices and how young people today will never be able to buy a house when they're adults.**

다른 뉴스는 주택 가격의 오름세를 도표로 만들어 현재의 청소년 세대가 성인이 되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He closes his eyes and tries to render her smell.**

소년 눈을 감고 소녀의 향을 되새기고자 한다.

**(He smiles again.) And he thinks of him and Sarah living in a tent under the stars, somewhere no one can find them.**

(그는 다시 미소 짓는다.) 자신과 사라가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할 그 곳, 별빛 아래 텐트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한다.

**He remembers the wet of her mouth. Her taste of spearmint.**

소녀의 촉촉한 입술을 기억한다. 박하 맛.

*(소녀, 초췌해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간다. 할머니, TV 앞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다)*

*(The Girl, enters the flat exhausted. Grandma, is cleaning up the soybean sprouts in front of T.V.)*

**소녀 : 집에는 늘 그렇듯 할머니가 있다. 24 시간 총천연빛을 내뿜는 TV 가 있다.**

Girl: As always her grandma is home. All day long Technicolor T.V. is on at home.

**할머니 : (돌아보며) 완?**

Grandma: (Turning her body) came back?

**소녀 : 할머니...**

Girl: Grandma...

**할머니 : 무사?**

Grandma: What's wrong?

(사이)

**소녀 : 아니... 배 아파. 배 쓸어줘.**

Girl: Nothing... My stomach bothers. Rub it with your hand please.

*(소녀, 할머니 무릎에 눕는다.)*

*(The Girl, rests her head on her grandma's lap.)*

**할머니 : 기여기여. (배를 쓸면서 비념을 한다) 할마님, 할마님, 삼신 할마님, 우리 손녀 배 아픈거 문딱 낫게해줍서. 몸 속에 궂은 것들일랑 문딱 몰아내줍서. 그저 불쌍한 자손들이우다. 아픈디 어시 밤낮으로 살퍼주십서. (계속 중얼거린다)**

Grandma: Sure sure. (Passing her hand over the Girl's stomach, she prays.) My Goddess, my birth Goddess, please cure my granddaughter's stomachache. Please drive out all the bad things from

her body. We are merely poor weaklings. Please take care of us day and night healthy. (Keeps praying)

**소녀:** 소녀는 가만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자주 아랫배가 아팠던 걸 기억한다.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이면 더 심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열심히 배를 쓸어줬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방 괜찮아졌다.

Girl: The Girl closes her eyes gently. And remembers that she often had a stomachache when she was young. It got worse whenever she missed her mum. Then every time her grandma rubbed her stomach caringly, she felt miraculously better.

**소녀 :** 할머니...

Girl: Grandma...

**할머니 :** 무사?

Grandma: What?

**Boy:** Once she went all the way to Namhae, Dokdo, Japan, and Russia from Jeju Island as an active diver, but now instead of an abalone iron in her hand she has a rice scoop.. The Girl then realizes. Her grandma cooked, not because she liked it, but because she had no other choice.

소년 : 할머니는 한때 상군 해녀로 제주에서 남해로, 독도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물질을 다녔다. 하지만 할머니 손엔 이제 빗창(전복 떼어내는 도구) 대신 밥주걱이 있다. 소녀는 이제서야 깨닫는다. 할머니는 좋아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할 일을 도맡아 할 뿐이라는 걸.

**소녀 :** 바다 안 보고 싶어?

Girl: Don't you miss the sea?

**할머니 :** TV 서 바당 실컷 봤신디?

Grandma: Why, I've watched the sea enough on T.V.

**소녀 :** 우리, 제주 갈래? 거기서 살래?

Girl: Shall we, go to Jeju? Shall we live there?

*(할머니, 지영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뭔가 있구나 눈치챈다. )*

*(Grandma, gazes at Jiyoung's face. Knows something's going on.)*

**할머니 :** (망설이다가) 지영아....너....

Grandma: (Hesitantly) Jiyoung.... You....

*(지영, 사실을 들킬까봐 얼른 할머니 말을 자른다.)*

*(Jiyoung cuts her off, out of fear that her Grandma would find out that she's been to her mum.)*

소녀 : 아니, 그냥. 요즘 제주 인기잖아. 나, 밥 하는 거 배울게. 신경 안쓰게 할게. 할머니는 친구들이랑 실컷 물질해.

Girl: I'm good, but, Jeju is hot lately. I, will learn how to cook. I won't bother you.

Grandma, go out and dive with your friends all day.

할머니 : .....만나시냐?

Grandma: .....have you met her?

(사이)

(Pause)

소녀 : .....뭐가?

Girl: .....What?

할머니 : 느 어멍.

Grandma: Your mum.

(사이)

(Pause)

소녀 : .....버 렸 어.

Girl: .....I threw it away.

할머니 : 엉?

Grandma: What?

소녀 : 아, 주소 버렸다고. 이제 만나서 뭐해? 기억도 안나는구만.

Girl: Yes, I binned her address. What's the use in meeting her now? I don't remember anything.

*(할머니, 소녀 마음을 다 안다는 듯, 한참을 고개를 주억거린다.)*

*(Grandma, as if she understands how she feels, nods her head for quite awhile.)*

**할머니 : 기여기여... 누게 잘못도 아니라... 인연이 아닌 거주.**

Grandma: I understand I understand... it's nobody's fault... it's just not meant to be.

**소녀 : 소녀는 멀쩡했던 배가 진짜로 아파온다...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

Girl: The Girl gets to have a real stomachache this time.... her stomach seems like it is twisting...

**할머니 : (소녀 뱃소리를 들으며) 이그 기껏. 배 아픈 게 아니곡 배고픈 거여신게. 혼저 밥 주저.**

Grandma: (Listening to the sound in her stomach) it's nothing. You are hungry, not sick. Grandma will get you some food right away.

**소녀 : (냉큼 몸을 일으키며) 내가 할게.**

Girl: (Raises her body right away) I will get it.

**할머니 : 고만 시라. 반찬 어디 신줄도 모르멍. (주방으로 가며) 우리 강아지, 뭐를 주든 힘이 나코... (흥얼거리며)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Grandma: Wait. You don't know where the sidedishes are. (Walking toward the kitchen) My sweetie pie, what would make you stronger...? (Humming) eeodosana.... Eeodosana....

**Boy: Mum is out of the bath and in a blouse and dress trousers.**

소년: 샤워를 끝낸 엄마,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입고 나온다.

**The same blouse and trousers she wears for every important occasion.**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입는 그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

**The same blouse and trousers she brought with her from our country.**

우리 나라에서 엄마가 가져 온 그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

**Do you really think they care what you're wearing?**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사람들이 엄마가 뭘 입었는지 신경 쓸 것 같아?

**She ignores the Boy.**

엄마 소년의 말을 못들은 척한다.

**Do you honestly think they give a shit?**

솔직히 말해봐 신경쓸 것 같아?

**Mum: Don't swear.**

엄마: 말 좀 곱게 해라.



**Boy: The interview is for a strip club. To be the cleaner. To come clean up at 2 am everyday because they open again at 10am the next morning.**

스트립 클럽 면접. 청소 일. 매일 새벽 2 시 출근 청소. 아침 10 시에 다시 문을 여니까.

**Who the heck is going to a strip club for breakfast?**

어떤 놈이 스트립 클럽에 아침을 먹으러 가지?

*(할머니, '이어도 사나'를 계속 흥얼거리며 밥상을 차린다.)*

*(Grandma, gets dinner ready, continuously humming 'eodosana'.)*

**소녀 : 소녀는 비밀번호로 꽁 잠긴 엄마 세상을 떠올린다.**

The Girl Remembers that her mum's world locked tight with a password.

**모르는 비밀번호를 쓰는 엄마는 이미 소녀를 지워내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Her mum using a password that the Girl doesn't know deleted her already and lives in the different kind of world.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는 할머니는 소녀가 그렇게 밀어내도 늘 같은 세상에 있다.**

**Her Grandma, that often forgets her password, is always in the same world as the Girl, even though she continues pushing her away.**

*(다음 대사에서 할머니의 여신같은 이미지와 바다 소리가 점점 지영 공간을 압도한다.)*

*(In the dialogue below, Grandma's goddess image and the sound of the sea gradually takes over Jiyoung' space.)*

**밤마다 우는 나를 포대기로 업고 깜깜한 바다 속을 후여 후여 헤쳐갈 때도,**

**할머닌 저 노래로 버텼는지 몰라.**

**망사리에 전복이며 문어 대신 온갖 근심거리들이 넘쳐날 때도,**

**할머닌 저 노래로 버텼는지 몰라.**

**할머닌는... 늘 그렇게... 저 자리에서...**

Whenever Grandma swam 'whew whew' in the dark sea, carrying me, a cry-baby, on her back, Maybe she was able to hang in there thanks to that song.

Even when the fish net (mangsari) was overflowed with all sorts of concerns instead of abalones and octopuses,

Maybe she was able to hang in there thanks to that song.

Grandma....always the same... always in the same place...

**할머니 :** (수저를 잡고 춤을 추듯 다가온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수저를 건넨다) 마, 혼자 먹으라. 밥심이 제일이여.

Grandma: (Approaches with the spoon and chopsticks as if dancing) eeodosana~ eeodosana~  
(Hands over the spoon and chopsticks) hey, eat up. The beginning of health is eating rice.

**Boy: And the Boy can't help picturing his mother as a stripper.**

소년은 스트립퍼가 된 엄마 모습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He can't help picturing the kind of things she'll need to clean up.**

엄마가 청소해야할 것들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He's trying hard to get the images out of his mind.**

소년은 자기 머리 속에서 그 모습을 지워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소녀 :** 소녀는 자기 마음에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려고 무진 애를 쓴다.

The Girl: The Girl tries very hard to erase the longing for her mom out of her mind.

#### Scene 14

*[Video games reflected in music and projections. No subtitles needed.]*

*[음향과 프로젝션에 비디오 게임이 반영됨. 자막 불필요.]*

*(Boy and Girl are both playing a video game.*

*소년과 소녀 둘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

**Boy: She wants to escape so she turns on a video game.**

소년: 도피하는 심정으로 소녀 온라인 게임을 켜다.

**소녀: 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켜다.**

Girl: He turns on a video game.

**Boy: It's an army game.**

소년: 군대 게임.

**소녀: 소년, 달린다. 점프한다. 구른다. 총에 맞아 죽는다. 다시 시작.**

Girl: He runs. He jumps. He rolls. He gets shot and dies. He starts again.

**Boy: She runs. She jumps. She rolls. She gets shot and dies. She starts again.**

소년: 소녀 달린다. 점프한다. 구른다. 총에 맞아 죽는다. 다시 시작한다.

**소녀: 소년 달린다.**

Girl: He runs.

**Boy: She jumps.**

소년: 소녀 점프한다.

**소녀: 소년 구른다.**

Girl: He rolls.

**Boy: She gets shot.**

소년: 소녀 총에 맞는다.

**소녀: 소년 죽는다.**

Girl: He dies.

**Boy: She starts again.**

소년: 소녀 다시 시작한다.

**소녀: 소년 다시 시작.**

Girl: He starts again.

**Boy & Girl (at same time): S/he runs. S/he jumps. S/he rolls. S/he gets shot and dies.**

S/he starts again.

**소년과 소녀 (동시에): 소년/소녀 달린다. 소년/소녀 점프한다. 소년/소녀 구른다. 소녀/소녀 총에 맞아 죽는다. 소년/소녀 다시 시작.**

**Run. Jump. Roll. Shot. Die. Again. Run. Jump. Roll. Shot. S/he dies again. S/he dies again.**

**S/he dies again.**

**달린다. 점프한다. 구른다. 총에 맞는다. 죽는다. 다시. 달린다. 점프한다. 구른다. 총에 맞는다.**

**소년/소녀 다시 죽는다. 소년/소녀 다시 죽는다. 소년/소녀 다시 죽는다.**

**Boy: His mum shuts the front door.**

소년: 엄마가 현관문을 닫는다.

**소녀 : 아빠가 방문을 두드린다.**

Girl: Her dad knocks on the door.

**Boy: He looks in the mirror and the smudged warpaint looks like a bruise.**

소년: 거울을 들여다본다. 얼룩진 전투용 화장이 멍처럼 보인다.

**소녀 : 거울 속에 길 잃은 북극곰이 공포에 질려있다.**

Girl: The stranded and terrified polar bear is in the mirror.

**Boy: He tries to feel the pain of it**

소년: 소년 멍이 유발한 고통을 느껴보려고 한다.

**The fight that caused it**

멍을 생기게 한 싸움

**The contact of fist against skin**

살갓에 닿은 주먹

**소녀 : 빙하가 무너져내리고**

Girl: The iceberg collapses

**Boy: A house crumbles**

소년: 주택이 무너져 내리고

**소녀 :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Girl: A child drops out of the sky

**Boy: A plane drops out of the sky**

소년: 비행기가 하늘에 떨어지고

**소녀 : 소녀가 봉을 타고 내려온다.**

Girl: The girl slides down a pole

**Boy: And he dies again.**

소년: 소년 다시 죽는다.

소녀 : 그리고 소녀는 다시 죽는다.

Girl: And she dies again.

## Scene 15

*[Up on the roof. Subtitled]*

*[옥탑위. 자막있음]*

**Sarah: You weren't at the exam.**

사라: 시험 치러 안 왔더라.

**Boy: Didn't see the point.**

소년: 굳이 칠 이유가 없어서.

**Not like anyone's gonna notice anyhow right?**

뭐 누가 알 것도 아니고 그치?

**Sarah: I noticed.**

사라: 난 알았잖아.

*(He smiles.*

*Picks up fallen leaves that are on the roof.)*

*(소년 미소 짓는다.*

*옥상 위에 떨어진 낙엽을 집어 든다.)*

**Boy: When the leaves are on the tree, all bright and green, someone should tell 'em, warn 'em:**

소년: 잎이 나무에 달렸을 때는 생생한 초록빛인데, 누군가 말해줘야 할 듯, 경고해야할 듯

**They're destined to turn, crumble and fall.**

너희 이파리들은 단풍이 들고, 부스러지고 떨어질 운명이라고.

**Each one of these meant to be individual, no two the same, but all look identical.**

잎 하나 하나마다 자기 세계가 있는 건데,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다 똑같이 보이잖아

**Sarah: I think that's snowflakes.**

사라: 그건 눈송이 아냐?

**Boy: Is it?**

소년: 그런가?

**Like the veins running through it. Supposed to tell you their life story, their age or something.**

앞에 난 금처럼. 자기 이야기나 나이 등등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Sarah: I think that's tree bark.**

사라: 그건 나무 껍질 아닌가?

**Boy: (traces the lines/veins on the leaf.) Like this one means he used to play football, but wasn't good enough.**

소년: (잎의 금/잎맥들을 따라가 본다.) 여기 이건 소년이 축구를 했지만 썩 잘하지는 못했다는 뜻

**And this one means his father buggered off when he was two.**

이건 두살 적에 아버지가 돌연 꺼졌다는 뜻이지.

**And this one means he's crap at maths.**

이건 수학에 썩병이라는 뜻이고.

**And this one means he just wants to blow away in the breeze, far far away.**

이건 그냥 산들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는 뜻이지.

**Sarah: Wow you're good at that.**

사라: 와아 너 대단하다.

*(He goes over, takes her hand.*

*Traces the lines.)*

*(소년 소녀에게 가, 손을 잡는다.*

*손금을 따라가 본다.)*

**Boy: And this one means...**

소년: 이 금은...

**Sarah: What?**

사라: 뭐?

**Boy: Dunno. Think it's only leaves I can read.**

소년: 모르겠다. 난 나뭇잎이나 읽을 수 있나봐.

**Sarah: Go on.**

사라: 읽어봐봐.

**Boy: I can't. I can't read it. I can't read you.**

소년: 못해. 못 읽어. 넌 못읽어.

**You need to help me.**

네가 도와주면 몰라도.

*(Pause.)*

*(사이).*

**Sarah: That one means she's also crap at maths.**

소녀: 저건 소녀도 역시 수학에 쟁쟁이라는 뜻이고.

*(He moves his finger to another line on her palm)*

*(소년은 손가락으로 소녀의 다른 손금을 따라간다.)*

**And that one means she likes reading, likes stories. That she cares more about people in stories than in her own real life, than in her own family, than in...**

그리고 저건 소녀가 책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고, 이야기 속 인물들을 자기 현실 생활이나 현실 가족보다 훨씬 챙긴다는 거고...

**And that one, that line that just seems to suddenly stop in her palm? That's her older sister.**

그리고 갑자기 끊어진 금은? 그건 언니.

**The one she looked up to. The one who had it all figured out. The one person in the world who got her. The one who just went and...died. A freak accident.**

믿고 따랐던 언니. 모든 걸 다 알았던 언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녀를 이해한 사람.

그냥 떠나버린...죽어버린 사람. 말도 안 되는 사고.

**And that little bit coming off the line, that's the girl wishing it was her. She never said it aloud, but she did. She wished it had been her, not her sister.**

거기 빠져나온 금은 소녀가 바라는 자기 자신.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한 적 없지만, 소녀는 바랬다. 죽은 게 자기였으면... 언니가 아니고.

**And worse, so did her parents.**

그리고 더 슬픈 건, 소녀 부모도 그랬다는 거다.

**Because you'd think that after losing one child you'd hold on tighter to the one left behind.**

한 아이를 잃으면 남은 아이에게 더 집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But not the girl's parents.**

소녀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다.

**No, they buried themselves into their work at the office, into home renovations, into trips away. Because if one was going to go, they wished it had been her. They never said it but the girl knew.**

아니, 그들은 사무실 일, 주택 개조, 해외 여행에 피문혔다.

하나가 죽게 된다면, 그것이 소녀이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소녀는 알았다.

**And the girl was sad obviously. And angry. But more than that she was jealous of her sister.**

소녀는 정말 슬펐다. 화가 났다. 무엇보다 언니를 질투했다.

**Because the dead can't do anything wrong.**

죽은 사람은 아무 것도 잘못할 수 없으니까.

**And her sister gets relief. From all...this...**

언니는 해방됐으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And she was the only one who...**

소녀만이 오직...

**That line just stops because there's no one left in the world who understands the girl.**

저 금이 그냥 끊어진 것은, 소녀를 이해할 사람이 이 세상엔 하나도 안 남았기 때문이다.

*(Pause.*

*He traces a new line on her palm.)*

*(사이.*

*소년 소녀의 손바닥에 새로운 금을 긋는다.)*

**Boy: And this is when she meets a boy who does. [Understands her.]**

소년: 이 금은 소녀가 [자기를 이해하는] 소년을 만날 때 생긴다.

**(Keeps tracing up) And this is when they have lunch for the first time.**

(계속 금을 그어 올라간다) 이 금은 둘이 처음으로 함께 점심을 먹을 때 생긴다.

**And this is when they escape to the roof for the first time.**

이 금은 둘이 처음으로 옥상으로 달아날 때 생긴다.

**And this is when – (his finger now firmly up her sleeve, he suddenly stops short.)**

이 금은 – (소년의 손가락은 이제 단호하게 소녀의 옷소매로 올라간다, 갑자기 멈춘다.)



*(She pulls his finger away, pulls sleeve down.)*

*(소녀 소년의 손가락을 치우고, 소매를 내린다.)*

**Boy: What's that?**

소년: 뭐야?

**Sarah: What's what?**

사라: 뭐가 뭐?

**Boy: Let me see.**

소년: 어디 봐.

**Sarah: Don't touch me.**

사라: 됐어.

**Boy: Let me see.**

소년: 보자.

**Sarah: Just leave me alone.**

사라: 상관 마.

*(A brief struggle, and he gently but firmly grabs hold of her, pulls up her sleeve.)*

*(짧은 몸싸움 후, 소년은 조심스러우나 단호하게 소녀를 잡고, 소매를 올린다.)*

**A series of cut marks.**

여기 저기 자상의 흔적.

*(Pause.)*

*(사이.)*

*(He hesitates, then gently traces one with his fingers.*

*She loosens up and lets him.)*

*(소년 망설이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자상 흔적을 따라간다.*

*소녀 긴장을 풀고 그가 하는 대로 둔다.)*

**Boy: Do your parents know?**

소년: 부모님도 아셔?

**Sarah: Yeah right.**

사라: 하하.

**Boy: And the other stuff? About your sister? Have you told them about that?**

소년: 다른 건? 네 언니 일은? 그 애긴 했어

**Why don't you talk to them?**

왜 말씀 안 드려?

**Sarah: Why doesn't he?**

사라: 쟀 왜 안 그러는데?

**Boy: Who?**

소년: 누구?

*(She picks up the leaf from before.)*

*(소녀 좀 전의 잎을 집어든다.)*

**Sarah: Why doesn't he just...run away? Blow off in the wind far far away like he wants to?**

사라: 왜 애는 그냥... 안 달아나? 원하는 대로 멀리 멀리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

**He's already invisible, right?**

애는 이미 투명 인간이야, 그치?

**He could just disappear.**

그냥 사라져버려도 그만.

*(She flings the leaf into the wind.)*

*(소녀 바람속으로 획 잎을 던진다.)*

**Just like that.**

딱 저렇게.

**Boy: With you, I just. I dunno. I fit.**

소년: 너와 함께라면, 난 그냥, 모르겠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Sarah: I'd come with you.**

사라: 나도 함께 갈게.

**Boy: Come with me where? What do you mean?**

소년: 나랑, 어딜 가? 무슨 말이야?

**Sarah: I'm saying, I'm actually saying, we could do it. We could disappear.**

사라: 말하고 있잖아. 지금 말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사라질 수 있다고.

**Boy: You serious?**

소년: 진심이야?

**Sarah: You and me.**

사라: 너랑 나랑.

*(She takes his hand. Stares at the horizon.)*

*(소녀 소년의 손을 잡고, 지평선을 응시한다.)*

**Gone.**

사라지자.

**Boy: I can't.**

소년: 난 안 돼.

**Sarah: Isn't that what you said you wanted?**

사라: 너 그러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Boy: ...**

소년: ...

**Sarah: Isn't it?**

사라: 아냐?

**Boy: Yeah but I didn't mean...**

소년: 그랬지,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Sarah: Mean what?**

사라: 그럼 뭐야?

**Mean with me.**

나랑 함께 아냐?

**Boy: No, it's not**

소년: 그게 아니고

**Sarah: No I get it.**

사라: 뭐, 이해한다고 내가.

**Boy: That's not it.**

소년: 그게 아니고.

**I can't just...**

그냥 그렇게는...

**What about my mum?**

우리 엄마 어찌고?

**Sarah: You said she's never home anyway.**

사라: 네 엄마 어차피 집에 없다고 그랬잖아.

**Boy: Well yeah.**

소년: 그래도

**Sarah: And you can't stand her anyway**

사라: 어차피 엄마때문에 짜증난다며.

**Boy: We can't just -**

소년: 그냥 저지를 순 없어 -

**Sarah: I thought we were in this together.**

사라: 난 우리가 같은 생각인 줄 알았다.

**Boy: In what?**

소년: 뭐?

**Sarah: THIS.**

**Understanding this pointless world of listening and following and asking and selling and earning just so you can cause a volcano or a stock market crash or a late night stabbing or cycle collision.**

말을 듣고 지시에 따르고 묻고 팔고 이익을 얻는 이 무의미한 세상을 이해하여  
화산 폭발, 주식 시장 붕괴, 야밤의 칼부림, 자전거 충돌 초래하기.

**You think anyone would actually miss you? Do you?**

누가 널 보고 싶어할 것 같아? 그래?

**You think any of the kids down there give two shits about you?**

저 아래 녀석들 가운데 누구 하나 널 궁금해 할 것 같아?

**You think they'd even notice?**

뭐 이상한 낚새라도 찰까?

**You and I can never belong.**

너랑 난 절대로 재들하고 못 어울려.

**Never.**

절대로.

**Because we understand it.**

우린 이치를 이해하니까.

*(Pause.)*

*(사이.)*

**Boy: This is fine isn't it? Like this.**

소년: 지금도 괜찮지 않아? 이대로.

**Sarah: Coward.**

사라: 겁쟁이

**Boy: Come on.**

소년: 야.

**Sarah: You're no one! You know that?**

사라: 넌 존재도 없어! 그거 알아?

**Boy: Stop screaming!**

소년: 소리 지르지 마!

**Sarah: Why?! You think anyone cares! You think they're going to come up here! Or even look!**

사라: 왜?! 누가 네 신경 쓸 것 같아! 재들이 여기 올라올 것 같아! 쳐다보기라도 할까!

**No! Because no one cares about you!**

아니! 아무도 너 따위 관심없거든!

**Boy: Stop it.**

소년: 그만 해.

**Sarah: No one!**

사라: 아무도 아냐!

**Not even me.**

나도 아냐.

**Not even me.**

나도 너한테 관심없다고.

*(She exits. Leaving him alone to stare at the horizon.)*

*(소녀 퇴장. 지평선을 응시하는 소년을 혼자 놔둔 채로.)*

## Scene 16

*[Ensemble populates the class. Limited subtitles]*

*[써포터즈가 학생 역할로 교실을 채움. 일부만 자막]*

*(교실. 수업 시작 전 아침 시간.)*

*(The classroom. The morning time before class starts.)*

소녀 : (교실에 들어서며) 소녀는 요 며칠 발걸음에 힘이 짹짹 붙는 걸 느낀다. 할머니 밥을 움막움막 잘 먹어서 그런가, 할머니 마음을 알게 되서 그런가. 암튼 소녀 마음에 돋았던 가시들이 조금은 떨어져나간 기분. 여전히 아빠랑 마주치면 불편하고, 태희랑 있으면 실없는 바보가 되지만, 뭐 이 정도면 견딜만하다고 소녀는 생각한다. 근데 소녀는 애써 괜찮아졌는데, 교실 분위기는 뭐 이러냐?

Girl: (Entering the classroom) The Girl feels energized in every step she makes lately. Maybe because she eats Grandma's food with a great appetite? Maybe because she understands Grandma now? Whatever the reason is, the Girl's thorny heart seems to get mellower. It's still uncomfortable to run into dad, and Taehee still makes her feel stupid, but it is not too bad, she thinks. The Girl finally made herself feel better, but what's wrong with the class?

(아이들, 모여있다.)

(Classmates, have gathered.)

학생 1 : 페이스북 안봤냐? 어젯밤 완전 핫한 뉴스였는데... 주말에 합숙할 때 터졌나봐. 기획사대표가 연습생들 티셔츠 벗기고 가슴 만지고 또...

Student 1: Didn't you see the Facebook post yet? It was the hottest news last night... it seemed to happen during weekend camp. The head of that agency took off trainees' t-shirts, touched their breasts and...

학생들 : 어머 어머 어머

Students: OMG!

학생 1 : 왜 여자 연예인들 빨리 데뷔시켜준다고 성 상납 강요받고 그러잖아.

Student 1: Why the women entertainers, were pressured to offer sexual favors to get debut sooner.

학생들 : 어머 어머 어머

Students: No!

학생 1 : 연습생 하나가 충격받고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대.

Student 1: They say that one of the trainees got psychologically traumatized and admitted to the mental hospital.

학생들 : 어머 어머 어머

Students: OMG!

**학생 1 : 근데 왜 재는 멀쩡할까?**

Student 1: How come she is okay?

*(모두, 태희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Everyone, turns one's head toward Taehee.)*

**학생 1 : (소녀에게 동조를 구하듯 다가오며) 혹시.... 재한텐 기회였나? 요즘 치마가 너무 짧더라니.**

Student 1: (Approaching as if asking the Girl to agree) by any chance.... Did that give her an opportunity? Her skirt did seem too short lately.

*(태희가 아이들을 노려본다. 아이들, 소녀 둘레로 모여들며 수군댄다.)*

*(Taehee glares at them. Classmates, gather around the Girl and talk in whispers.)*

**소녀 : 풍랑주의보가 내린 바다처럼 아이들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출렁 출렁.**

**Girl: Their whispers roll in all directions, like the choppy sea with heavy wind and waves warning.**

**정말일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면....?**

Is that true? Considering that she couldn't explain herself....?

**정말일까?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나온 거 보면...?**

Could it be true? Considering that she came to school as if nothing happened...?

**학생들 : 완전 여시.**

Students: A total whore.

**학생들 : 완전 내숭.**

Students: A total trickster.

**학생들 : 완전 걸레.**

Students: A total slut.

**소녀 : 여신 태희, 걸레짝처럼 추락....**

Girl: Goddess Taehee, falls like a slut....

**소녀는 더이상 아무 것도 아닐 수 없게 된 자신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애쓴다. 하지만, 태희 눈빛에 소녀가 걸린다.**



**The Girl becomes uncomfortable since she cannot be invisible any more. So she tries hard not to meet anyone's eyes. But, Taehee's desperate eyes catch the Girl.**

*(태희, 갑자기 일어난다. 소녀쪽으로 다가온다. 아이들이 태희를 피하며 양 옆으로 비켜선다.)*  
*(Taehee, suddenly stands up. Approaches the Girl. The classmates make way on either side, avoiding Taehee.)*

**소녀 : 태희 발소리가 소녀 머리에서 팔딱팔딱팔딱팔딱.**

Girl: In her head Taehee's footsteps tap tap tap tap.

**사방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

The glaring eyes in ten directions.

**태희 : 지영아...**

**Taehee: Jiyoung...**

**소녀 : (곰짝못한 채 안절부절못하며) 아... 아...**

(She doesn't know what to do, all trapped) Uhm...ummm...

**(벌떡 일어서며 부러 큰소리로) 화장실!**

(Jumping up and shouting in an unnecessarily loud voice) Restroom!

**소녀는 태희 눈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멀리 도망친다.**

The Girl runs far away from Taehee's piercing eyes.

**태희한테 배신당할까봐 늘 조마조마했던 소녀가**

**먼저 배신자가 되어 도망친다.**

The Girl always scared of being betrayed by Taehee, but now becomes the betrayer herself and runs away from her.

## **Scene 17.**

*[Video game feel. Letter can be projected through the webcam. Limited subtitles if any, until dialogic sections which are subtitled.]*

*[비디오 게임 스타일. 글자는 웹캠을 통해 뜰 수 있다. 자막은 있더라도 아주 조금 있고, 대사 부분에 가면 전체 자막 있음.]*

**Boy: The boy rushes through the street looking like a scene from one of his games**

소년: 자주 하던 게임 장면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으로 소년 황급히 달려간다

**Siren wailing in his head**

머리 속엔 사이렌의 울부짖음

**Mud and water racing up his trouser legs**

바지 자락을 타고 올라가는 진흙탕 물

**As he dives through the front door.**

현관문으로 뛰어든다.

*(Pause. Silence. He breathes hard.)*

*(사이. 정적. 소년의 거친 호흡.)*

**Gentle afterschock – two letters fall to the floor from the letterbox. Water from the boy's hair makes a bullet hole in the letter, forcing the ink to bleed.**

가벼운 후폭풍 - 편지함에서 두 장의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소년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편지에 총알 구멍을 만들고, 잉크가 번진다.

**Boy: To the parent/carer of.....**

소년: 부모님께...

**The boy picks it up slowly like the grenade it is.**

소년은 마치 수류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천천히 편지를 집어든다.

*(소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다가 화들짝 깨어난다.)*

*(The Girl, is startled to wake up from taking a nap on the desk.)*

**Boy: Words pop off the page at him.**

소년: 글자들이 소년에게 통 튀다.

소녀 : 소녀는 악몽에서 막 빠져나왔다... 이글거리던 짐승들의 눈빛... 물려뜯긴 게 소녀였나, 태희였나... (머리를 흔들며) 태희 눈빛이 안 떨어져...(한숨)

Girl: The Girl just now got out of the nightmare... Animals' glaring eyes... Who was bitten, the Girl or Taehee... (Shaking her head) Taehee's glaring eyes don't come off. (Sighs)

**Boy: Absences**

소년: 무단결석

(소녀, 시간을 확인하고 놀란다)

(The Girl, is surprised after checking the time)

**Boy: Final warning**

소년: 최종 경고

(소녀, 허둥지둥 학교 갈 준비를 한다.)

(The Girl, rushes to be ready for school.)

**Boy: Failure to**

소년: 낙제

(소녀, 자꾸 뭔가를 빠뜨리거나 떨어뜨린다.)

(The Girl, keeps missing or dropping something.)

**Boy: Possible exclusion**

소년: 퇴학 경고

소녀 :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다가) 아, 머리 머리! 머리 어떡해... 소녀는 후드티로 가리기로 한다.

근데, 후드티가 안보인다.... (후다닥 거실로 나가며) 후드티 어딴?

Girl: (Seeing herself in the mirror last time) Gah, my fringe! What should I do with this fringe?... The Girl decides to cover it with a hoodie. By the way, where is it.... (Rushes out to the livingroom) Where is my hoodie?

**Mum: Is that you?**

엄마: 너니?

**Boy: His mum looks at him from the other end of the flat.**

소년: 엄마가 아파트 반대쪽에서 소년을 바라본다.

(할머니와 아빠,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녀를 쳐다본다.)

(Grandma and dad, talking, look up at the Girl.)

**할머니 : 무슨 티?**

Grandma: What hoodie?

**Mum: What's that in your hand?**

엄마: 손에 그거 뭐니?

**소녀 : 후드티! 모자 달린 거, 검은 거. 엇다 치웠어?**

Girl: A hoodie! Hooded, black, where did you put it?

**Boy: What are you wearing?**

소년: 뭘 입은 거야?

**What the hell are you wearing?**

그것도 옷이라고 입었어?

**Mum: Language!**

엄마: 말버릇하곤!

**아빠 : 지금 뭐하는 짓이야?**

**Dad: What are you doing now?**

*(She comes closer, grabs the note out of the boy's hand.)*

*(엄마 가까이와 소년의 손에서 쪽지를 뺏는다.)*

**소녀 : 내꺼 건들지 말랬잖아!**

Girl: Didn't I tell you not to touch my stuff without asking!

**할머니 : 나가 나중에 찾으커메 밥이나 먹으라.**

Grandma: I will find it out later, eat your breakfast now.

**소녀 : 후드티 없으면 안된다고! 당장 찾아내, 당장!**

Girl: I cannot go out without that hoodie! Hurry up and find it out!

**아빠 : 뭐하는 짓꺼리냐고? 그깟 후드티 땀에 이 난리를 퍼? 너 같은 딸은 진짜...**

Dad: I said what are you doing? Do you make all this fuss for that stupid hoodie? You are really...

**Boy: What are you wearing?**

소년: 입은 게 뭐냐고 ?

**Mum: My uniform. For that new job. Everyone wears same.**

엄마: 유니폼, 새 직장의 유니폼. 다 똑같이 입거든.

**소녀 : 진짜 버리고 싶지? 나 같은 딸, 솔직히 엄마 아빠 아무도 안 원하잖아. 왜, 진작에 버리지 그랬어?**

Girl: Really want to give up on me? Stupid me, Tell me the truth, neither you nor mum wants me anyway. Why, why didn't you give up on me sooner?

**Boy: You look like a right tart.**

소년: 딱 술집 여자네.

**Boy: (Simultaneously) she slaps him.**

소년: (동시에) 소년 엄마한테 맞는다.

**소녀 : (동시에) 소녀가 처음으로 아빠한테 맞는다.**

Girl: (Simultaneously) her dad slaps her for the first time.

**Boy: It burns but he just stares at her, through her. Defiant.**

소년: 뺨에서 불이 났지만 소년은 뚫어져라 쳐다만 본다. 반항적으로.

**소녀 : 그리고 소녀는 처음으로 집을 뛰쳐나간다.**

Girl: And the Girl rushes out of her flat for the first time.

## **Scene 18**

*[Movement and projection section. Bombardment by words as described]*

*[동작과 프로젝션 파트. 설명한 대로 말 폭탄]*

**Boy: Grabs the note back and charges to his room.**

소년: 쪽지를 되찾아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간다.

**Door slams.**

문이 쿵 닫힌다.

**And he shoots them with guns**

총으로 쏜다.

**And he chops them with knunchuks**

쌍절곤으로 쳐낸다.

**And he strangles them with rope**

노끈으로 목을 조인다.

**And he throws the controls at the screen**

게임 조종기를 화면에 던진다.

**But it doesn't break**

그러나 부서지지 않는다

**Nothing breaks**

아무 것도 부서지지 않는다.

*[Korean and British issues/words around the set. Perhaps English ones too. We're bombarded with images/words/ideas. Just as Boy and Girl, we should become overwhelmed.]*

*[세트 주위로 한국과 영국의 문제점/어휘 뜬다. 아마 영국 것도 함께. 우리는 영상/어휘/개념의 폭탄 세례를 받는다. 소년과 소녀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압도된다.]*

*(한국 이슈-Korean issues)*

**세대 갈등**

Generation conflict

**등쳐먹는 재벌**

Exploiting Chaebol

**별볼일 없는 교육**

Unimpressive Education System

**교통체증**

Traffic Congestion

**체중으로 인격 모독**

Putting Someone Down For Their Weight

**독재 망령**

Overshadowing Dictatorship

**망가진 4 대강**

Four Major Rivers Destroyed

**광속 인터넷망**

Broadband Internet Connections

**광속 여성 혐오**

High Speed/Broadband Misogyny

**혐오 시설 반대**

Not In My Back Yard Protest

**대학가에 번지는 미투**

**Me Too Movement spreading on the college campuses**

**적폐 청산**

Cleaning Up that Deep-Rooted Evils

**적폐 청산을 청산**

Cleaning Up That "Cleaning Up Deep-Rooted Evils"

**산을 깎는 개발**

Development that Shaves the Mountains

**뼈를 깎는 성형**

Plastic Surgery that Shaves the Bones

**인심 깎는 정치인들**

Politicians that Shave the People's Support

**꼴통**

Dumbass

**불통**

Miscommunications

**통일되지 않은 통일**

Unification Without Unification

**일상 폭언**

Routinely Abusive Language

**집단 폭행**

Mob Lynching

**성폭행**

Rape

**행복 지수 제로**

Zero Happiness Index

**안전 제로**

Zero Safety Index

**존재감 없음**

No Presence

**없음**

Nothingness

없음

Nothingness

**(British issues – 영국 이슈)**

**Teenage boy beaten on the street**

십대 소년이 길거리에서 방망이질을 당하고

**Street smarts**

세상 물정에 스마트하게 밝은 눈

**Smart phone**

스마트폰

**Phone scam**

폰 사기

**Scamming migrants**

사기치는 이민자들

**Send em home**

저들 나라로 보내

**House squatters**

공유지의 무단 거주자들

**House prices**

거주 주택 가격

**Debt**

빚

**Repayments**

상환

**Working credit**

근로 소득세액 신용감면

**Credit card**

신용 카드

**Nought interest**

무이자

**Not interested**

이자가 안 붙어 관심무

**Tax cuts**

세금 감면 택시



**Taxi driver kills girl**

택시 기사가 소녀를 살해하다

**Girl exploited**

착취당하는 소녀

**Explosions**

폭발

**Nuclear**

핵폭탄

**New clothes**

핵폭탄급 새 옷

**New questions**

새로운 질문

**Wrong answer**

틀린 답변

**Student fees**

학생 회비

**Student loans**

학자금 대출

**Exams and tests**

시험과 검사

**STI test**

성병 감염 검사

**Testing my patience**

나의 인내력 검사하기

**Patient killed by nurse**

간호사에게 살해된 환자

**Ebola**

이볼라

**Pimples**

딱딱 여드름

**Pop-ups**

팝 팝업 상점

**New message**

새 메시지가 팝업 창에

**Swipe right**

쓱 카드로 긁어

**Nothing left**

싹 없어짐

**Warning**

경고

**Exclusion**

퇴학

**Absent**

결석

**Nothing**

없음

**Nothing**

없음

**Nothing**

없음

**You're nothing**

너의 존재는 없음이야

*(And we're suddenly in the next day, on the bus.)*

*(갑자기 다음 날, 버스 안이다.)*

**Boy: Pop**

소년: 펑

**Spray**

물보라치듯

**Thud**

쿵

**Bus trucks along**

버스가 툼툼툼 나아간다

**Where's your girlfriend?**

네 여자 친구 어딴냐?

**Arthur**

아더

**Lasers, guns**

레이저총, 권총

**Warning**

경고

**A Little trouble in psycho paradise?**

정신 병자의 낙원에 작은 문제라도?

**Bash, thud, pop**

강타, 쿵, 펑

**And the boy feels...**

그리고 소년이 느낀 것은...

**Arthur is lying on the floor, bleeding from his nose**

아더는 바닥에 벌러덩 누어있다, 코피를 흘리면서

**Arm over his ribs**

팔은 갈비뼈 위에 늘어져있고

**The boy's hand covered in sweat and blood**

소년의 손은 땀과 피 범벅

**His shoe on Arthur's stomach**

소년의 신발 한 짝은 아더의 배 위에

**And the boy feels...**

그리고 소년이 느낀 것은...

**Like blood emptying from veins**

피가 정맥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Like jumping freefall**

자유 낙하로 뛰어 내리는 것 같은

**Like going underwater**

잠수하는 것 같은

**He feels...released.**

느낀 것은...해방감.

*(지영, 아파트 단지를 돌다가 태희와 마주친다. 둘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움직인다.)*

*(Jiyoung bumps into Taehee while she's been hovering around the flat complex. The two move, maintaining a certain distance.)*

**태희 : ...나쁜 년.**

Taehee: ...Bitch.

**소녀 : 성난 파도.**

Girl: Angry waves.

**태희 : 너까지...**

Taehee: You...

**소녀 : 조약돌이 와르르**

Girl: Pebbles clattering

**태희 : 내가 더러워?**

**내가 꼬셨어?**

**내가 잘못이야?**

Taehee: Am I dirty?

Did I seduce them?

Is it my fault?

**소녀 : 바위에 연거푸 부딪히는 파도.**

Girl: Waves continuously hitting the rocks.

**태희 : (울먹이며) 내가... 그렇게 미웠니?**

Taehee: (About to cry) was I... that annoying?

**(사라진다)**

(Disappears)

**소녀 : 잠수.**

**숨통이 펴 터질 때까지**

**모든 소리가 멎힐 때까지**

**아빠를 지우고**

**엄마를 지우고**

**태희를 지우고**

**소녀를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펴**

*(소녀, 달린다)*

*Girl: Submerges.*

*Until her breath is out and pops*

*Until all sounds are swallowed*

*Erases her dad*

*Erases her mum*

*Erases Taehee*

*Erases the Girl*

*Erases, erases, erases, and pops*

*(The Girl, runs)*

*(All the words that have been projected disappear. There is calm.)*

*(세트를 비추던 말들이 모두 사라진다. 고요.)*

*(And now the boy is back on the roof.)*

*(이제 소년은 다시 옥상에 와있다.)*

**Boy: Okay.**

소년: 오케이.

**Sarah: Okay what?**

사라: 오케이 뭐?

**Boy: Look, let's not...**

소년: 저기, 그러지 말고...

**Sarah: I'm sorry.**

**For.**

사라: 미안하지만.

무슨 뜻.

**Boy: I know.**

**Okay?**

소년: 그래.

오케이?

**Sarah: Okay.**

사라: 오케이

**Boy: And I'm. I'm saying. I'm saying okay to.**

소년: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은 그게 오케이라고.

**Sarah: To what?**

사라: 뭐?

**Boy: Let's disappear. Together.**

소년: 사라지자. 함께.

**Sarah: You mean that?**

사라: 정말?

*(He takes her hand.)*

*(소년 소녀의 손을 쥔다.)*

**Boy: No one understands us here.**

소년: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이해 못 해.

**Where will we go?**

어디로 갈까?

**Cos we should go like, now. Or tomorrow. But like soon cos...**

가야해 그러니까. 당장, 아님 내일이라도. 어쨌든 곧 왜냐면...

**We need to get tickets and pack or...**

티켓도 사고 짐도 꾸리고 안 그럼...

**Sarah: We don't need tickets.**

사라: 티켓은 필요없어.

**Boy: What do you mean?**

소년: 뭐라고?

**Sarah: You know what I mean.**

사라: 뭐긴 알면서

*Beat.*

뚱뚱.

**Sarah: There's nowhere for us.**

사라: 갈 곳이 없어 우리에게겐.

**Not really.**

딱히.

**We can be properly free from all this.**

이 난장에서 제대로 해방될 수 있는 거야.

**You said it yourself, no one understands us here.**

네 입으로 말했잖아,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이해 못한다고.

*(She takes his hand. Brings him to the edge with her.)*

*(소녀는 소년의 손을 쥐다. 소년을 난간 끝으로 데려간다.)*

**Think of all the shit we won't have to endure anymore.**

생각해봐. 허접한 것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I know it's what's been underneath us all along, beneath all our conversations, our first kiss.**

난 알아 이 결말은 내내 우리와 함께 있었어. 우리의 모든 대화와 첫키스와 함께.

**It was always coming to this.**

기승전사라짐.

**I know you know that.**

난 알아 너도 그걸 안다는 거.

*(Long pause.)*

*(긴 사이.)*

**Tomorrow.**

내일.

**You and me.**

너와 나.

## Scene 19

*And Sarah is gone. And all the overwhelming sounds and words invade the space again, it's again overwhelming- the boy just starts running or climbing or both.*

*And Girl is doing the same. It's manic, it's about escape.*

사라는 없다. 공간을 압도했던 소리와 말들이 다시 한 번 침범, 압도한다- 소년 그저 마구 달리거나 기어오르거나 둘 다 하기 시작.

소녀도 같이 달리거나 기어오르거나 둘 다 한다. 광기, 탈출을 위한 몸부림.

**소녀 : 달리기**

Girl: Runs

**Boy: Jumps**

소년: 점프하기

**소녀: 구르기**

Girl: Rolls

**Boy: Shot**

소년: 총 쏘기

**소녀 : 달리기**

Girl: Runs

**Boy : Jumps**

소년: 점프하기

**소녀: 구르기**

Girl: Rolls

**Boy : Shot**

소년: 총 쏘기

*(Shot과 동시에 번개. 소년과 소녀, 빛과 함께 그대로 멈췄다가 사라진다.*

*The lightning at the same time as the shot. The Boy and Girl, frozen at the lightening, disappear.*



뒤이어 엄청난 천둥 소리. 사방에서 쏟아지는 얼음 조각들. 얼음 조각들 위로 앞서 나왔던 글씨들이  
비처럼 쏟아진다.

*Followed by the loud thunder. The bits of ice pouring down from the ten directions. The words we  
saw before are pouring down like rain on those bits of ice.*

가끔씩 밀려왔다 사라지는 어슴푸레한 빛.

*A dim light repeatedly appearing and disappearing.*

시공간 경계가 생기기 이전, 태초의 바다 같은 공간.

*Like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and space, this space is without form, just the void, like the  
primordial water.)*

(소년과 소녀, 얼음 조각 위에 누워있다. 둘다 태아처럼 웅크려 있다..

*The Boy and Girl, lie on a piece of ice. Both curl their bodies like a baby in a mother's womb.*

소년, 가까스로 눈을 뜬다. 둘레를 두리번거린다. 조금 떨어진 곳에 소녀가 있다. 소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다.

*The Boy, barely opens his eyes. Looks around. Finds the Girl not far from himself. To his surprise, it  
is the Girl.*

소녀는 계속 눈을 감은 채다. 둘은 직접 말하지 않지만 서로의 생각을 듣는다.

*The Girl, remains with her eyes shut. They hear each other's thought without talking to each other  
directly.)*

**Boy: Where am I? Why is she here? Is she dead?**

소년 : 여긴 어디지? 애는 왜 여기 있지? 죽었나?

**소녀 : (눈을 감은 채로) 살아있나?**

Girl: (With her eyes shut) am I alive?

**Boy: She's alive. What a relief.**

소년 : 살아있네. 다행이다.

**소녀 : 불행이지.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잖아.**

Girl: Unfortunately. Nothing gets over yet.

**Boy: Here... everything seems to stand still... Is it still today?**

소년 : 여긴... 모든 게 멈춰있는 것 같아.... 아직 오늘일까?

소녀 : 그냥.... 잠시만 이려고 있자... 이 고요 속에... 이 완벽한 고요 속에... 그냥 이렇게... 밖은 너무 시끄러웠어...

Girl: Please... Leave me alone for a while... In this stillness... In this perfect stillness... Please... It has been so loud outside.

**Boy: That's true... it has always been loud. Let's not think about it...Even if it's just for a little while.** (Shuts his eyes tight)

소년 : 그래... 늘 시끄러웠지.... 잠시만이라도 잊을 수 있다면... 잊자... (눈을 질끈 감는다)

(사이)

(Pause)

소녀 : 울음소리가 나. 네 가슴에서...

Girl: I hear you crying,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Boy: Nothing...nothing... I am just nothing...**

소년 : 없음... 없음... 내 존재는 없음이야...

(소녀, 눈을 뜬다. 소년에게 조용히 다가간다.)

(The Girl, opens her eyes. Quietly approaches the Boy.)

소녀 : 있음. 내가 널 알아보잖아.

Girl: You are. I recognize you that are here.

(소녀, 소년의 손에 자기 손을 댄다. 손을 맞댄 채 천천히 거울놀이를 한다.)

(The Girl, brings her hands to the Boy's hands. With their hands together, she plays mirror slowly.)

소녀 : 전자렌지 너머로 널 본 것 같아.

Girl: I think I saw you over the microwave oven.

바람에 흩어지는 나뭇잎 너머로 널 본 것 같아.

I think I saw you over the leaves scattered in the wind.

창문에 한숨 같은 바람이 스칠 때, 거울에 분노가 서릴 때, 난 널 느낀 것 같아.

I think I sensed you when the wind of sighs passed the window, when the anger nested in the mirror.

(손을 놓으며) 너한테 난 없음이겠지만...

(Letting go of his hands) Although I'd be nothing to you...

**Boy: (This time the Boy brings his hands to the Girl's hands and plays mirror)**

소년 : (소년이 다시 소녀의 손을 맞대고 거울놀이를 한다)

**You are. I think I saw you over the elevator.**

있음. 엘리베이터 너머로 널 본 것 같아.

**I think I saw you over the leaves trembling at the raindrops.**

빗줄기에 몸을 떠는 나뭇잎 너머로 널 본 것 같아.

**I think I sensed you when the rain of tears gathered in the window, when the loneliness accumulated in the mirror.**

창문에 눈물 같은 빗물이 고일 때, 거울에 외로움이 쌓일 때, 난 널 느낀 것 같아.

**See I also recognize you.**

나도 널 알아보잖아.

*(두 손을 맞잡는다. 이제부터는 직접 말을 주고 받는다.)*

*(Hands in hands. They start conversing directly.)*

**소녀 : 지영. 부, 지, 영. 내 이름.**

Girl: Jiyong. Bu, Ji, Yong. That's my name.

**Boy: (Repeats after her) Bu, Ji, Yong.**

소년 : (발음을 따라하며) 부, 지, 영.

**소녀 : (박수 친다) 참 잘했어요.**

Girl: (Applauds) Nice.

**Boy: Try it yourself.**

소년 : 너도 해봐.

**소녀 : 뭐?**

Girl: Excuse me?

**Boy: (Pronounces his full name, totally rolling his tongue)**

소년 : (혀를 한껏 굴리며 자기 이름 전체를 말한다)

**소녀 : (가까스로 따라한다)**

Girl: (Barely repeats after him)

**Boy: (Applauds) not bad.**

소년 : (박수 친다) 조금 잘했어요.

**소녀 : 야, 영어 말하지 마. 스트레스 만땅이야.**

Girl: Ugh, Don't speak English. It triggers my headaches.

**Boy: Haven't I been speaking in English?**

소년 : 나 계속 영어로 말했는데?

**소녀 : 맞아. 그랬지? 근데 신기하네. 다 들려.**

Girl: True. That's right. Hey it's odd. How come I understand English?

**Boy: Oddly enough I understand Korean.**

소년 : 나도.

**소녀 : 이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아. 영어에 목매 필요도 없고. 넌 모를 거다. 한국에선 영어가 권력이야.**

Girl: I wish this could be real. Then we don't have to worry about learning English. You wouldn't understand. In Korea, having a good command of English means you have the power.

**Boy: In England, being white, talking posh, means you have the power.**

소년 : 영국에선 백인이 권력이지.

**소녀 :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Girl: The power makes up the history

**Boy: The power controls the life and death of people**

소년 : 권력이 삶과 죽음을 조종하고

**소녀 : ....많이 힘들었지?**

Girl: .... You have been going through a lot?

**Boy: So have you.... And as you said nothing gets over yet... (I'm slightly confused by this sentence...think it's a translation thing. Can it be clarified?)**

소년 : 너두 힘들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네 말처럼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고...

(사이)

(Pause)

**소녀 : 혹시 이게 기회 아닐까?**

Girl: By any chance is this an opportunity for us?

**Boy: What kind of an opportunity?**

소년 : 무슨 기회?

**소녀 : 세상과 완전히 끊어질 기회. 어차피 난 돌아갈 곳도 없어.**

Girl: An opportunity to cut off the world completely. Any way I have nowhere to go back.

**Boy: Be honest, you don't want to go back... But we don't know where this is, or what will come out of this...**

소년 :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겠지.... 하지만 여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소녀 : 아는 것도 있어. 여긴 우리 말고 아무도 없지,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아무 것도 할 필요도 없어. 완전 대박 아냐? 완전 자유라고.**

Girl: But we know this: Here is nobody except us, nothing will happen for a while, and we don't need to do anything. Isn't it a jackpot? It is perfect freedom.

**Boy: Freedom? A very familiar word. So are you free and easy now?**

소년 : 자유? 많이 듣던 말이다. 그래서 흥분해?

**소녀 : 어, 홀~ 가~ 분~**

Girl: Yeah, free~ and~ easy~

**Boy. You don't look free at all... I'm not sure. My body is away from the world, but my mind is not. As long as their world keeps moving, I keep thinking about them.**

소년 : 피이. 표정은 영 아니구만....난 자신 없다. 몸은 이렇게 세상과 떨어졌는데, 마음은 아냐. 세상이 돌아가는 한, 신경이 쓰일 것 같아 난.

**소녀 :** 실은 나도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 하면 그만인데 왜 자꾸 신경 쓰이냐고?

Girl: Honestly speaking, same here. Just ignoring them will make things easier, but why does it bother me?

**Boy: Wouldn't it be possible to get over anything?**

소년 : 우린 진짜 아무 것도 끝낼 수 없을까?

**소녀 :** 살아돌아갈 수는 있고?

Girl: Can we make it back alive?

**Boy: (Grinning) in the end you still want to live?**

소년 : (피식 웃으며) 살고는 싶어?

**소녀 :** .....네가 날 알아보잖아. 아, 초등학교때로 돌아가고 싶다.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으로, 이 지구에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Girl: ..... That you recognize me. I wish I could go back to elementary school days. Go back to my mum's womb. Go back to the pre-human days, to the days before the catastrophe befell on the planet earth.

**Boy: I wish I could delete everything and start over again.**

소년 : 싹 다 지우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소녀 :** 쿨! 지구 리셋 버튼 빼익. 쿠우우웅 초기화 진행중. 10, 9, 8....

Girl: I agree! Push the factory data reset button for the planet earth. Boooooommmm resetting in progress. 10, 9, 8...

*(갑자기 아득한 곳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얼음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Suddenly the ringing sound of the phone is heard from afar. The pieces of ice sitting on the bottom start moving.)*

**소녀 :** (놀라며) 나, 아무 짓도 안했어.

Girl: (Startled) I, didn't do anything.

**Boy: Be careful!**

소년 : 조심해!

(소년과 소녀가 서있던 얼음 조각이 찢어져 갈라진다. 소년, 얼른 소녀의 손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놓친다. 소년과 소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떠내려간다. 소년과 소녀, 겁에 질린다.)

(The piece of ice, the Boy and Girl were standing on, breaks apart. The Boy, tries to hold the Girl's hand quickly, but loses it. The Boy and Girl rapidly go adrift away from each other. They are scared.)

소녀 : 윙!

Girl: Will!

**Boy: Jiyoung!**

소년 : 지영!

(사이)

(Pause)

소녀 :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진다. 주머니에서 츄파춥스 두 개를 꺼낸다.) 오렌지맛, 좋아?

Girl: (Rummages through her pocket with her trembling hand. Hurriedly gets two Chuppachupps from her pocket.) Orange flavour, is that okay?

**Boy: (Nodding) I have nothing to share...**

소년 : (고개를 끄덕이며) 난 줄 게 없는데...

소녀 : (얼른 소년한테 한 개를 던지며) 니가 나고, 내 꺼가 니 꺼고 빠까빠까 쌤쌤. 몰랐냐?

Girl: (Quickly tossing one to the Boy) you are me, mine is yours, onaji onaji same same. Don't you know that?

(둘은 계속 멀어진다.)

(The two keep drifting away.)

**Boy: Thanks.**

소년 : 고마워.

소녀 : 미 투.

Girl: Me too.

**Boy: I could survive because of you after all.**

소년 : 그래도 네가 있어서 건딜 수 있었어.

**소녀 : 미 투. 네가 있어서 최악은 아니었어.**

Girl: Me too. It was not the worst because of you.

**Boy: Why don't we eat this now?**

소년 : 지금 먹을래?

**소녀 :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지금. 지금만 생각할 거야. 지금의 달콤함만...**

Girl: (Nodding) Okay here and now. I will only think of the present. Only of this sweetness...

**Boy: Only of this sweetness...**

소년 : 지금의 달콤함만...

(소년과 소녀, 서로 응시하며 츄파춥스 껍질을 깬다. 츄파춥스를 입에 넣는 순간, 얼음 조각들이 멈춘다. 스펙트럼처럼 알록달록한 오렌지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소년과 소녀, 똥똥 떼 위로 올라간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전화벨 소리가 커진다.)

(The Boy and Girl, gazing at each other, unwrap the Chuppachubs. The moment they put the Chuppachubs in their mouths, the pieces of ice stop moving. The variegated orange lights spread out in all directions. The Boy and Girl, leap off the bottom and go up. They look at each other with bewilderment and joy. The ringing sound of a phone gets louder.)

## Scene 20.

[Some subtitles needed]

[일부 자막 필요]

암흑 속 전화벨 소리.

The ringing sound of a phone in the dark.

(집으로 돌아온다. 소년과 소녀, 각자 장소에서 손에 쥐고 있는 츄파춥스 껍질을 내려다본다.)

(Return to home. The Boy and Girl, look down at the Chuppachubs wrappers in their hands in their respective places.)



**Boy: Are you scared?**

소년 : 겁 나?

**소녀 : 응, 무지무지 겁나. 넌?**

Girl: Yes, so very much. How about you?

**Boy: I am... I am no different from you. I hope it's not too late.**

소년 : 나야... 나라고 별 수 있냐. 아직 안 늦었겠지?

**소녀 : 안 늦었다고 믿을래. 어차피 지금이 우리의 최선이니까.**

**Girl: I will say to myself it's not too late. No matter what, here and now is our best.**

*(소년과 소녀, 심호흡을 한다. 소년, 서둘러 펜과 종이를 탁자 위에 놓는다. 펜을 잡은 손이 자꾸만 떨린다. 떨리지 않게 다른 한 손으로 꼭 쥐다.)*

*(The Boy and Girl, breathe a deep breath. The Boy, puts the pen and paper on the table right away. His penned hand gets shaky. He holds the shaky hands with the other hand.)*

소년 : 첫머리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 아무 생각도 안 나....

**Boy: I don't know how to start.... I can't think of anything....**

**소녀 : 나도. 첫마디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 아무 생각도 안 나....**

Girl: Me neither. I don't know how to start. I can't think of anything...

소년 : 작문 시간에.... 그래... 첫머리는 항상.... 친애하는.... (편지를 써나간다)

**Boy: Remember the English Composition class... yes... always start your sentence with....**

**Dear... (Start writing a letter)**

**소녀 : (천천히 태희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태희야... 태희야, 있잖아... 그때 널 피했던 건 순전히 겁이 나서였어..... 네가 그렇게 고통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넌 항상 나보다 나았으니까....**

Girl: (Slowly moving towards Taehee's flat) Taehee... Taehee, Listen to me... I avoided you then only because I was afraid..... I was totally clueless about your sufferings. Because you were always stronger than me...

**Boy: (A letter) you don't know me. But I'm friends with your daughter. Well maybe more than friends. Or perhaps after this not anything at all.**

소년: (편지) 저를 모르실 거예요. 저는 따님의 친구입니다. 어쩌면 친구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편지 이후로는 아무 관계도 아닐 수도 있고요.

**소녀 : 소녀는 스스로 먼저 찾아간 적이 없는 태희집 앞에 선다. 엄마집 앞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긴장감. 다행히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문이 열리고, 태희가 나온다.**

Girl: The Girl stands before Taehee's flat, she didn't go there of her own accord, though. Feels the same choking tension as in front of her mum's flat. Luckily before she pushes the bell, the door opens, and Taehee appears.

**Boy: But I need to tell you...**

소년: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어요...

**That I fear for the life of your daughter.**

따님의 목숨이 달렸거든요.

**I fear she's going to...**

두려워요 혹시라도 그 친구가...

(소녀, 쉼파츨스 껍질을 손에 꼭 쥐다.)

(The Girl, holds tightly the Chuppachubs wrapper.)

**소녀 : 밥은... 먹었어? 밥심이 있어야 싸우지.**

소녀는 태희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 두 눈에 힘을 꽉 준다.

그 놈, 완전 개새끼야.

소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욕들을 최대한 쥐어짜며 기획사 대표를 욕한다.

부당하게 태희에게 쏟아지던 욕들을,

부당하게 태희에게 덧씌워진 고통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면서 태희처럼,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비난을 맞닥뜨렸을 엄마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게 그 누구한테도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는다.

Girl: Have you... eaten? The beginning of a successful fight is the food.

The Girl empowers her eyes not to avoid Taehee's eyes.

That bastard, is a total bullshit.

The Girl, squeezing out all the swear words she knows, curses at the head of the agency.

All the negative comments that bombarded Taehee.

All the unneceary pain that bombarded Taehee.

The Girl trieds hard to turn back the hands of time before all of the mess.

At the same time it reminds the Girl of her mum who, like Taehee, must have encountered all the blame only because she was a woman.

And the Girl realizes it is not easy for anyone to live here as a woman.

*(태희, 사라진다.)*

*(Taehee, disappears.)*

**Boy:**

**Sincerely.**

**Love.**

**William. (Puts down his pen)**

소년 : 그럼 이만.

윌리엄 올림. (펜을 내려놓는다)

*(소년과 소녀, 긴 숨을 내뿜는다.)*

*(The Boy and Girl, breathe out deep breaths.)*

*(소녀, 15 층 자기집을 올려다본다. 소년은 편지를 들고 어떡할까 생각중이다.)*

*(The Girl, looks up at her flat on the fifteenthth floor. The Boy is thinking about what to do with his letter.)*

**Scene 21.**

*[A change of mood. Again, movement music and projection contribute. They get back to their own worlds]*

*[분위기 달라짐. 다시 동작, 음향, 프로젝션들 활약. 소년 소녀는 각기 자기 세계로 귀환]*

**Boy: The door opens and he knows his mother will yell at him for yesterday.**

소년: 문이 열리고, 소년은 엄마가 어제 일로 큰 소리 칠 것을 안다.

**소녀: 발소리가 들리고, 소녀는 집 나간 일로 아빠가 버럭 소리칠 것을 안다.**

Girl: The footstenps approach and she knows that her father will yell at her for disappearing.

**Boy: He knows that she'll –**

소년: 엄마가 소리 지를 –

**But she just hands him a box of cocopops.**

그런데 엄마는 그냥 코코팝스 한 상자를 건네기만 한다.

**소녀: 그런데 아빠는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소녀를 그저 바라만 본다.**

Girl: But he just looks up at her, tears in his eyes.

**Mum: I saw that you were out of them.**

엄마: 다 떨어졌길래.

**Boy: And she smiles.**

그리고 미소 짓는다.

**소녀: 아빠가 희미하게 웃는다.**

Girl: And he smiles.

**아빠: 돌아왔네.**

Dad: You're back.

.

**Mum: What is it?**

엄마: 뭐니?

**Boy: And he hands her the note he has written.**

소년: 엄마에게 자기가 적은 쪽지를 건넨다.

**소녀: 아빠가 손을 내민다.**

Girl: And dad holds out his hand.

**Boy: And he sobs.**

소년: 소년이 흐느낀다.

**소녀: (아빠 손을 잡는다.) 아빠가 운다.**

Girl: (And she takes her dad's hand) and he cries.

**Boy: He sobs deep into her breast like he did when they moved here.**

소년: 엄마 가슴 깊숙이 파묻혀 흐느낀다 이곳으로 이주해 올 때처럼.

**Like he did when he fell off his bike.**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때처럼.

**He cries for the refugees and the cancers and the animals in the cages and the tsunamis.**

난민, 암, 우리에게 갇힌 동물, 쓰나미를 생각하며 운다.

**He cries for the polar bears and for friendships gone.**

북극곰, 우정을 생각하며 운다.

소녀: 소녀는 아빠를 위로한다. 이상적인 아빠가 되고 싶었으나 결코 되지 못한 아빠를, 아빠 스스로도 피하고 싶었던 결점들을, 그리고 속으로는 아내를 몹시도 그리워하는 그런 아빠를 위로한다.

Girl: And she comforts him for the father he never was, for the things he wanted that never were, for the wife he deeply missed.

**Boy: He holds on to his mother so he won't sink.**

소년: 소년, 가라앉지 않으려고 엄마한테 매달린다.

**And he cries for Sara.**

그리고 사라를 위해 운다.

소녀: 어쩌다 여기서 부모 행세를 하다보니, 소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게 이거였음을 깨닫는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것.

Girl: And somehow here, playing the parent, she knows this is all she ever needed. To be here like this.

*(For the first time in the play the Boy speaks in the first person...)*

*(소년 이 극에서는 처음으로 일인칭 시점에서 말한다...)*

**Boy: And he gave the letter to the girl's mother, and then he - I.**

소년: 사라 엄마에게 편지를 전하고 나서 그는- 나는

**I gave it to her mother and I...I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next.**

나는 사라 엄마에게 편지를 건넸다. 나는... 나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But I think her mother saw her.**

그렇지만 개 엄마가 개를 봤을 거다.

**Really saw her.**

개 민낯을.

**And maybe, I hope, that meant that Sarah really saw herself.**

그리고 사라도 자신의 민낯을 봤을 거라 믿는다.

**And maybe that's enough. To start.**

그거면 아마 충분할 거다. 새로 시작하기에.

**Maybe I caught her just in time. Like I did that first time we went up to the roof. Just like she knew I would.**

아마도 난 사라를 제시간에 붙잡았을 것이다. 처음 옥상에 올라간 날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러리라는 걸 사라가 알았던 것처럼.

소녀: 소녀는...나는...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 그동안 내가 묻고 싶었던 것,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조리 담아. 그치만 보내지는 않았다. 아마 언젠가는 보낼지도.... 그치만 난 이제 안다. 내가 찾고 있는 건 그 누구한테서도 얻을 수 없다는 걸.

Girl: The girl...I... wrote a note to my mum. All the things I wanted to ask and say all these years. But I didn't send it. Maybe one day I will. But I know that none of it will give me what I'm looking for.

*(소녀, 비밀상자에다 편지를 담고 뚜껑을 닫는다.)*

*(Girl, places the letter in the secret box and closes.)*

*(He begins packing things into a backpack.)*

*(소년, 가방에 물건을 담기 시작한다.)*

*(He puts on his tie like he did early in the play. He looks in the mirror. And this time he really sees himself. And he's okay with it. He pauses.)*

*The Girl puts the box in a drawer by the mirror. Looks in the mirror at the boy.)*

*(소년, 극 초반에서처럼 넥타이를 맨다. 거울을 들여다본다. 이번에는 드디어 자신의 민낯을 본다. 민낯, 괜찮다. 멈춘다.)*

*소녀, 거울 옆 서랍에 상자를 집어넣는다. 거울 속으로 소년을 본다.)*

(End)

(끝)